

학술엑스포에서 1년간의 성과를 선보이다!

전 학과가 참여한 2023년도 학술엑스포



▶교내 전경

지난 11월 25일 수요일, 우리 대학에서 학술엑스포가 개최됐다. 학술엑스포는 학과별로 시행되는 박람회로, 그동안 전공 수업시간에 하지 못했던 것들이나, 했던 것들을 학과만의 학술적인 것을 통해 박람회에서 교류하고 배워 보는 자리를 갖는 시간이 됐다.

학내 모든 수업은 원칙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며 재학생은 학술엑스포에 참여함으로써 11월 15일 전체 수업에 대한 출석을 인정받게 되는 형식이다.

당일 수업이 없는 경우엔 타과 학술엑스포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당일 출석 인정이 가능하다. 학술엑스포 당일 날 수업을 별도로 운영하는 분반에 속해 있는 경우에도 수업 시간 외 학내 학술엑스포 행사에 참여해야 한다.

학술엑스포는 주제 캠퍼스뿐만 아니라 섹터 캠퍼스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우리 대학의 9개의 단과 대학에 속한 모든 학과 뿐만 아니라, 민선교양대학과 학생취업복지처, Q-College도 참여했다.

캠퍼스아시아학과 같은 경우에는 CAP

3국 학생이 바라본 한국·중국·일본이라는 주제로 민선도서관 6층 다목적 세미나실에서 행사가 진행됐다. 이는 우리 대학 CAMPUS Asia 한일중 사업단에서 주최한 것으로 한일중 3국 학생들이 한일중 현안, 한일중 3국 이미지, 그리고 3국 문화에 대해 함께 발표하고 토론하는 학술 교류 행사를 가졌다. 이번 학술 엑스포를 통해 3국 학생들이 새로운 한중일 인식 및 역사관을 가지게 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한다.

방송영상학과 같은 경우로는 정상진 촬영 감독을 강사로 초청해 스튜디오에서 장비를 전시하는 장비 시연회가 열렸다. 전시장비로는 FX3(시내바 카메라), PCW-Z 150(방송용 카메라), MOZA AIRCROSS2(집결), DJI Inspire2(드론)이 있다. 또 재학생 토크쇼, 우수작 상영회, 연구회 체험존 등을 통해 박람회를 구성했다.

경영학부의 학술엑스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경영학전공은 1부로 창업 및 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위한 학술 발표 대회가 진행됐고, 2부로 아시아비즈니스와 관련된 아이템제안 발표대회가 학생회장의 진행으로 학술엑스포가 이뤄졌다. 회계세무학전공은 1부로 캣 GTP활용으로 재무제표 작성 사례 분석이 학생회의 진행으로 이뤄졌다.



▶캠퍼스아시아학과 학술엑스포 참여 사진

니스와 관련된 아이템제안 발표대회가 학생회장의 진행으로 학술엑스포가 이뤄졌다. 회계세무학전공은 1부로 캣 GTP활용으로 재무제표 작성 사례 분석이 학생회의 진행으로 이뤄졌다.

또, 컴퓨터공학계열의 학술엑스포 같은 경우는 개막식이 10시, 폐막식이 17시로 7시간 가량의 학술엑스포가 진행됐다. 첫 번째로는 AI-SW 교육 스페이스 프로그램 등을 통해 5개의 SW중심학과 및 8개 SW융합연계전공 교육 내용 홍보가 이뤄졌고, 두 번째로는 AI-SW 프로젝트 갤러리를 통해 SW중심대학사업에 참여한 학생의 성과 전시가 이뤄졌고, 세 번째로는 AI-SW 플래시 그라운드를 통해 AI-SW의 체험존을 학과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구성했다.

이번 박람회에 참여한 특정 학과들은 학과생들의 높은 참여도를 이끌어내기 위해, 학술 엑스포 부스에 방문해야만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임팩트예술대학의 '코스튬 체험' 등 ▲디자인대학은 '우수작품 및

업작품 전시' ▲미디어콘텐츠대학은 '게임 체험', '상영회', '연구회 부스' 등의 운영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은 '작품 전시', '성과 전시', '발표회', '만들기 체험' 등 ▲International college는 '경진 대회', '작문 대회', '발표회' 등 ▲바이오헬스융합대학은 '오펜랩', '발표회', '전공 체험 박람회', '구강건강검사 및 구강관리교육', '논문 발표', '인바디 측정' 등 ▲사회과학대학은 '부스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발표회' 등 ▲Q-College는 '플리마켓', '경영선포시', '포토존', '콘텐츠 공모전' 등 ▲민선교양대학은 '토론대회' ▲학생취업복지처는 총학생회의 'E-Sports 대회' 등의 프로그램들로 우리 대학의 학술엑스포를 더 알차게 만들었다.

학술엑스포는 전공 학생들의 성장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또 전공 학생들이 학술엑스포 프로그램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갈고닦아 준비한 실력을 박람회를 통해 보여 줄 수 있는 자리가 됐다.

정은영 기자 indmsdud@gmail.com

학교기업을 통해 창의력을 펼치다!

스타트업 '뽀너스' 와의 마케팅 콘텐츠 개발



▶참여한 애니메이션 학과생들의 사진

지난 11월에 부산 웰스케어 신발 대표 브랜드인 스타트업 '뽀너스'가 동서대 애니메이션학과와 공동으로 2023년 연합형 학교 기업 지원사업 통해 기업 마케팅 콘텐츠 개발을 진행했다.

뽀너스는 2016년 부산에서 시작돼 글로벌 브랜드를 준비하는 의료인 전문 기업이다. 뽀너스의 주요 취지는 의료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사회와 의료 분야에 활발하게 기여하는 것이다. 해당 기업 취지에 맞게 취약계층과 코로나19 방역 의뢰진을 위한 신발을 부산진구에 가깝게 만들었다.

우리 대학은 학교 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디지털콘텐츠 학부를 중심으로 '애니모션'이 설립됐는데, 2024년까지 5년 동안 최대 2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을 예정이며 전국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3단계 연속 선정된 바 있다. 2개 이상의 학교 기업과 1개 이상의 산업체로 구성된 사업단 유형이며, 애니모션은 경남정보대학교 슈키트, 부산 지역 중소기업 '브랜드비'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학교 기업지원 사업인 애니모션을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창의력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우리 대학의 애니모션과 애니메이션학과가 참여했는데, 참여한 애니메이션학과 학생들은 뽀너스 기업

과 기업의 고객을 분석하고 이해해 고객이 공감할 콘텐츠를 개발했으며 본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는 뽀너스의 온라인 마케팅을 함께 진행했다. 지역 대학과 학생들은 지역 기업과의 협업으로 실무 경험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경험을 끼웠으며, 기업은 지역 인재 발굴과 지역대학과의 동반 성장이라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이번 프로젝트의 주요 학생 참여자 및 역할은 ▲김동수 학생 : 4가지 간조사 실무 상황에 따른 8컷 웹툰 제작 ▲박은재 학생 : 뽀구 제작/뽀구+뽀리 이모티콘 제작 ▲박은혜 학생 : 뽀니슬 스티커(봄/여름/가을/겨울) 제작 ▲윤미선/정진효 학생 : 2가지 4컷 웹툰(압박스틱킹/뽀구)이다. 추가로 학생들이 제작한 웹툰은 뽀너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연합형 학교 기업 지원사업은 11월 3일에 뽀너스 & 동서대학교 애니메이션 학과 장학금 시상 수여식이 진행되었으며, 참여한 학생들의 인터뷰는 추후 뽀너스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일대일 대표는 "지역에 잠재된 숨은 인재를 발굴하여 시장에서 성장 기회를 기업과 함께 만들어가는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부산 지역의 많은 스타트업에게도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은영 기자 indmsdud@gmail.com

국경을 초월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다!

최고경영자과정 종강식과 아시아대학총장포럼 개최 확정



▶제25기 최고경영자과정 종강특강 및 종강식

지난 1일 오후 7시에 부산롯데호텔에서 우리 대학 경영 대학원의 제25기 최고경영자과정 종강 특강과 종강식이 개최됐다.

종강 특강과 종강식에는 우리 대학의 최고경영자과정 제25기 원우 50여명과 우리 대학 장재국 총장, 김정선 총괄부 총장, 남호수 교학부총장, 보직교수들이 다수 참석했으며, 경남정보대학교에서도 박용수 총괄부 총장을 비롯해 다수의 보직교수가 참석했다.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의 결성을 준비하기 위해 다수의 최고경영자과정 졸업생이 특별히 참석했으며, 모두 제25기의 종강을 축하하는 자리가 됐다.

최고경영자과정이란, CEO의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리더십과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21세기 사회에서 우리 대학의 경영대학원이 엔터프라이저십(Entrepreneurship)에 관한 지식을 실무에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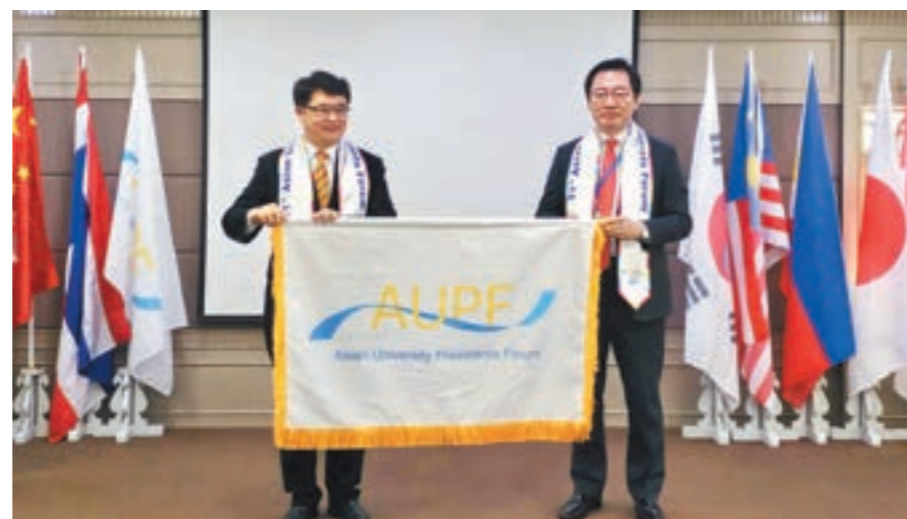
종강식에서 장재국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25기 최고경영자과정에는 최고경영자

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고, 매우 뜻깊은 기수로서 종강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많이 공헌해 주시길 동서인으로서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또한 임호택 대학원장도 "지난 1, 2학기 동안 현업과 함께 본 과정을 이수하노라 정말 바쁜 한 해를 보내셨으며, 서로 격려하고 도와준 덕분에 성공인 기수가 되었고, 지역사회 리더로서의 발돋움을 넓혀나가기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25기 최고경영자과정의 종강 특강으로는 부산시 사상구 국회의원인 장재원 의원의 '한국 정치와 부산의 미래'라는 주제로 부산의 미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한 강연을 통해 마무리됐다.

최고경영자과정은 제25기의 졸업과 함께 25년간의 네트워크를 결집하기 위한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를 결성하기로 했다. 제25기 졸업생에 대한 수료증서는 내년 2월 16일 학위수여식에서 전달될 예정이다.

다음은 내년 10월 제22회 아시아대학총



▶제22회 아시아대학총장포럼

장포럼 개최가 확정에 대한 기사다. 장재국 총장, 한경호 국제처장, 최홍성 국제교류센터장이 태국에서 개최한 제22회 아시아대학총장포럼에 참석했다. 금번 포럼을 통해 우리 대학은 내년 '제22회 아시아대학총장포럼', 'Asia Summer Program' 및 '2025년 Asia Faculty Workshop'의 유치를 확정했다.

아시아대학총장포럼은 2002년 태국에서 첫 포럼을 시작으로 매년 국가 및 대학을 달리하여 운영되고 있는 포럼이다. 현재 아시아지역 61개 대학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아시아 전역의 대학 총장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중이다.

태국 Siam University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아시아 10개국 14개 대학이 참석해 'Higher Education by Design in Disruptive Environment'를 주제로 아시아대학 간의 협력과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우리 대학은 지난날 28일 아시아대학총

장포럼 개최대학인 태국 Siam University와 방글라데시 Daffodil International University와 일반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중국 Guangdo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와 필리핀 Panapacific University와는 위탁교육 과정 운영과 관련한 별도 협정을 각각 체결했다.

금번 아시아대학총장포럼에서는 참가 대학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통해 내년 '제22회 아시아대학총장포럼', '2024년 Asia Summer Program' 및 '2025년 Asia Faculty Workshop'을 우리 대학에 유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폐회식을 통해 장재국 총장은 "국경을 초월한 고등교육기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아시아대학 간 실질적인 교류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함께한 대학 총장들을 초청한 바 있다.

정은영 기자 indmsdud@gmail.com

더 큰 무대로 나아가는 백진현 교수!

대구시립교향악단 제11대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위촉



▶지휘중인 백진현 교수의 모습

우리 대학의 백진현 문화예술공연학과(대학원) 교수가 2년의 임기로 대구시립교향악단 제11대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에 위촉됐다. 백 교수는 대구시립교향악단의 예술감독으로서 시립교향악단 운영 총괄의 직무를 맡게 될 예정이다.

대구시향은 지난 4월은 지난 4월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1·2차 서류·면접 심사, 3차 실연 심사 등을 거쳐 백 교수를 대구시향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선임했다.

해당 악단이 공개 모집으로 상임지휘자를 선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진원에서는 '해당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예술감독으로서 자질과 역량을 갖춘 자'를 응모 자격으로 게시해 둔 바 있다. 대구시향 호른 수석연주자로 활동한 바 있는 우리 대학의 백 교수는 이번 모집을 통해 상임지휘자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다.

백 교수는 계명대 음악대학 관현악과, 미국 브루클린 음악원, 맨해튼 음악대학원(MM), 하트프리트대 음악대학원(AD), 파이

스틴 국립예술대학원(DMA)을 졸업했다. 부산예술대학교 교수, 신라대학교 교수, 창원시향(구. 마산시립예술단) 음악감독 겸 교향악단 지휘자와 경북도향 상임지휘자 등을 역임했으며, 2007년 전국 교향악 축제 최고 지휘자 선정, 제27회 '오명의 음악가상', 제33회 '부산음악상', '2019 한국음악상' 등을 수상했으며, 해외 국제 음악 콩쿠르에서 심사를 맡기도 했다.

백 교수는 대구시향의 상임지휘자로서 지난날 10월 대구시향 제499회 정기 연주회를 통해 관객들과 처음 만났다. 해당 연주회는 월드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의 일환이자 대구시향 제499회 정기 연주회이기도 하다.

대구시향의 상임지휘자가 된 백 교수는 "다양한 공연을 통해 도민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는 사랑받는 도립교향악단이 되도록 단원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은영 기자 indmsdud@gmail.com

건축학과, '잇 : 다' 로 대상까지 이어지다!

대한민국 한옥 공모전 영예의 대상 수상



▶건축학과 정희용 교수 및 수상 학생

우리 대학 건축학과 학생팀이 '2023년 대한민국 한옥 공모전' 학생 부문에서 전체 1등인 대상을 수상하며 부상으로 상금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번 공모전은 한옥의 우수성을 발굴하고, 한옥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취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건축공간연구원 주관했다.

대상을 수상한 작품은 건축학과 3학년 이상하, 김민주, 정진규, 석다운 팀의 '잇 : 다'라는 작품이다. 이번 공모전은 준공, 학생 부분, 사진, 영상 부분에서 총 631점의 작품이 접수됐고, 최종적으로 48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중에서도 우리 대학 건축학과는 최고의 대상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우리 대학 건축학과가 한옥 공모전에서 수상을 이룬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0년, 2022년 한옥 공모전에서도 동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으나, 1등상인 대상을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작품은 고양시 장릉동에 위치한 서오릉 앞에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공모전이었으며, 세 가지 구역 중 원하는 구역을 선정해 마을을 조성하는 과제였는데, 해당 팀은 모든 구역에 마을을 조성하기로 계획했다.

기존에 있던 전통적인 한옥마을과 한옥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이를 '잇다'라는 큰 개념에서부터 연결해 나갔다. 과거와 현재, 신도시와 서오릉,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한옥마을을 통해 소통의 공간으로 구성하고자 했다.

기존 한옥이 가지는 마당이라는 개념을 현대의 광장으로 치환해 세 개 구역 각 특징을 살리고, 각각의 구역을 한옥의 뒷마루, 마을의 골목길과 같은 요소들을 이용해 하나로 이어 결속력 있는 마을을 구성했다. 이것들을 현대적 건축 요소로써 스카이브릿지나 마을 중심 건물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으며, 마을 중심 건물은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으로써 구역 간의 경계를 희석시키고자 했다.

이는 고양시 장릉 신도시(예정지)를 대상으로 상업·주거·문화 공간의 특성을 살리면서 각 공간을 연결하는 브릿지를 계획해 미래 한옥 도시의 모습을 창의적으로 설계한 점이 높게 평가됐으며, 심사위원들 역시 이들이 의도를 잘 파악해 높은 점수를 매겼다.

작품을 구성하며 가장 신경 쓴 점을 묻었을 때 이상하 학생은 "한옥마을을 계획하는 것이 공모전의 주된 설계 방향이었기 때문에 넓은 대지에서 주변 신도시와 서오



▶잇 : 다 건축 설계도

릉이라는 역사적 유산이 함께 어우러지며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썼다"며, "주어진 대지가 너무 넓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큰 부분부터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써서 구성하려고 노력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우러지고 이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 내부의 디테일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게 다른 팀과의 차별점을 낼 수 있는 부분이었지 않나"고 말했다.

또 가장 어려운 점을 물었을 때는 "건축학과 교육 과정 중 3학년까지의 과정에는 하나의 마을을 조성하는 정도로 큰 계획의 프로젝트가 없었기 때문에 막막함이 있었"다. 팀원 모두가 처음으로 접하는 마스터플랜이라는 넓은 계획에 처음 시작할 때 어려서부터, 또 무엇보다 해야 할지 막막했던 것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부분에서 어려움을 크게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해결했고, 이것이 좋은 결과로 나타난 것 같아서 만족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해결한 것까지 언급했다.

건축학과 학과장 정희용 교수는 "국제건축학인증 최고 등급을 3회 연속으로 획득할 수 있었던 건 국제건축학인증에 부합하는 교과 과정 운영, 대학의 지원, 교수진

의 노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도전 정신과 부단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대상을 수상한 이상하 학생은 "대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함께한 팀원들의 노력과 건축학과 교수님들의 가르침 덕분이었다"며, "이를 계기로 건축에 대한 더 깊은 고민과 노력으로 훌륭한 건축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대학 건축학과는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에서 진행되는 5년제 건축학 교육 인증을 3회 연속 최고 등급으로 획득했다. 건축사가 되기 위해서는 건축사법에 의거해 5년제 건축학과 학위과정을 이수했다는 자격을 갖춰야 하기에 이는 실로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실습 환경을 갖춘 건축학과와 뒷받침을 바탕으로 올해에는 2003년부터 부산광역시, 부산국제건축제조직위원회, 한국건축기협회, 부산건축기회가 주관한 부산의 대표적인 행사인 <2023년 제2회 부산국제건축디자인위크스>에서 수상을 하기도 했다.

우리 대학 학생들의 수상작은 국가한옥센터 홈페이지의 작품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규리 기자
Orlarb1f1@gmail.com

패션의 새로운 길을 열다!

패션디자인학과, 부산패션디자인대회 대거 수상



▶금상 <INTERRUPTED FREEDOM>



▶은상 <Ocean Ecosystem>

우리 대학 패션디자인학과 학생들이 부산패션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제30회 부산패션디자인 경진대회'에서 금상(부상 상금 300만 원), 은상(부상 상금 100만 원), 브랜딩상, 특선 4명, 입선 3명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부산패션디자인 경진대회'는 매년 부산광역시와 부산패션섬유산업협동조합의 주최로 진행되는 유서 깊은 패션디자인 경진대회로, 1차 맵 심사에서 40명을 선정해 진행, 마지막으로 3차 무대 심사를 통해 결과를 발표한다.

수상자는 모두 우리 대학 패션디자인학과 4학년 학생으로, 금상을 수상한 임예진 학생의 <INTERRUPTED FREEDOM>을 필두로 은상은 김수민 학생의 <Ocean Ecosystem>, 브랜딩상은 권진욱 학생의 <Hermaphroditus>가 수상했으며, 이외 특선, 입선 등에서 다수 수상했다.

영예의 금상을 수상한 임예진 학생의 작품 테마는 <INTERRUPTED FREEDOM>으로, 여대생 뱀받았던 자유를 마음껏 펼칠 수 있음과 동시에 사회가 정한 기준에 두려워하거나 움츠러들지 말자는 메시지를 표출한다. 자유로움을 당당히 드러내는 사람에게 이상한 시선을 보내는 사회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생각과 자유로움을 저마디의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은상을 수상한 김수민 학생의 작품 테마는 <Ocean Ecosystem>으로, 바다의 과거 흔적부터 현재까지의 변화무쌍한 모습,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가능성까지 깊고 큰 흐름을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키워드로 나타냈다. 데님, 매쉬, 오간자, 코튼, 실크, 메탈릭 등 총 10가지의 소재를 셔넵 기법으로 연구해 개발한 아트페퍼리의 독특한 원단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브랜딩상을 수상한 권진욱 학생의 작품 테마는 <Hermaphroditus>로, 그리스 신화 속 신 중, 사람으로 인해 남성성과 여성성을 모두 가지게 된 헤르마프로디토스'를 모티브로 삼았다. 단순한 젠더리스 패션의 경계를 넘어 성의 모든 아름다움을 다 갖춘 대상을 보여 주고자 한 작품이다.

특선을 수상한 학생은 김지영, 최연우, 김환희, 김시은 총 네 명이다. 김지영 학생의 작품 주제는 <CONNECTING>, 최연우 학생의 작품 주제는 <OBSESSION>으로 완벽함에 대한 압박, 김환희 학생의 작품 주제는 <DEFENSE : 방>, 김시은 학생의 작품 주제는 <연리지 결합>으로, 각자의 독특하고 자유로운 작품 세계를 잘 표현하고 있다.

이번 수상작들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작품 세계관을 엿볼 수 있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좋은 소식을 기대한다.

김규리 기자
Orlarb1f1@gmail.com

유네스코 문화유산 홍보 아이디어로 수상까지!

웹툰학과, 제2회 대학생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경진대회 2개 상 수상



▶우수상, 장려상 수상 학생

우리 대학 웹툰학과 1학년 재학생 두 팀이 '제2회 대학생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홍보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해당 경진대회는 한국문화재단에서 개최한 것으로, 미래 세대들이 우리 무형문화유산을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참신한 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국내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70개 팀이 참가했다. 결승에는 1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총 5개 팀이 진출했으며, 참가자들의 발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2팀이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을 개최한 한국문화재단은 문화재단 산하 공공기관이자 유네스코 인가 무형유산 자문기구로, 1980년에 설립된 이래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를 기반으로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향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형유산의 올바른 전승은 물론이고, 문화유산을 창의적으로

활용해 국민 모두가 더욱 즐겁게 전통적인 문화를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하며, K-heritage 총서 발간, 무형유산 국제리포지엄 개최 등 무형유산의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재단이 매년 추진해 오고 있는 무형유산 국제리포지엄은 무형유산을 둘러싼 다양한 전문적인 주제를 다루는 자리로, 유네스코 무형유산의 가치를 공유하는 주요 행사로 평가받는다.

우수상을 수상한 김휘민, 김연우 학생 팀은 제주 해녀의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모바일 게임 콘텐츠 기획으로 주목 받았다. 이들은 무형문화유산은 제주 해녀를 다양한 측면으로 다루며 콘텐츠를 통해 전하고자 했다.

김휘민, 김연우 학생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콘텐츠 기획서 작성과 발표 경험이 큰 도움이 됐다. 훌륭한 아이디어와 현장에서의 발표 실력은 모두 전공 수업을 바탕으로 성장시킨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무형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웹툰 콘



▶경진대회 홍보 배너

▶사진출처 - 한국문화재단 페이스북

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활동을 이어나가며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려상을 수상한 정다인, 이걸 학생 팀은 무형문화재 웹툰 박물관에서 탄생한다 는 주제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최근 웹툰뿐만 아니라 웹드라마 등에서도 환생을 주제로 다루고 있어 트렌드에 맞는 주제 선정으로 주목받았다.

정다인, 이걸 학생은 "본선에 진출하며 서울에서 발표하게 돼서 굉장히 떨렸는데, 다른 팀과의 소통과 다양한 경험에 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 "이번 경진대회에서의 수상과 본선 진출이 앞으로의 창작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경진대회를 주최한 김동민 한국문화재단 단 국제리포지엄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2세대가 무형유산의 가치를 되새기고 이를 통해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난

해에 이어 연속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했다"며, "앞으로도 한국문화재단은 젊은 세대들의 무형유산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이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관련 행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 대학 웹툰학과는 앞으로도 웹툰 작가로서의 소양을 물론이며, 웹툰과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인 콘텐츠 기획 및 프레젠테이션 교육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다채로운 웹툰 작가 및 PD로 성장할 수 있게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번 뒷받침을 바탕으로 우리 대학 웹툰학과 학생들은 이번 하반기 동안 <2023 동남권 LINC 3.0 창업 노마드 캠프>경진대회에서 2개 팀 우수상 수상, <제1회 전국 청년 웹툰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의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 웹툰학과 학생들에게 많은 지원과 기대 바란다.

김규리 기자
Orlarb1f1@gmail.com

걸으며 깨끗하게! 줍깅 하자!

미래커리어대학의 줍깅 봉사 활동



▶줍깅 참여자

우리 대학 미래커리어대학에서 부산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 활동의 일환으로 줍깅(plogging) 행사를 삼락동 생태공원에서 실시했다. 줍깅은 '줍다'라는 뜻의 스웨덴어 Plocka Upp과 '달리다'라는 뜻의 영어 Jogging의 합성어를 한국어로 치환한 것으로, 쓰레기를 주우며 달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번 행사는 미래커리어대학 전체 재학생, 교수, 재학생 가족 등을 포함해 약 400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행사로, 삼락동 생태공원 주변 일대를 걸으며 청소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미래커리어대학 박병주 학장은 "항후 자체 봉사 활동의 확대를 위해 미래커리어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지역사회 봉사단을 발굴하고, 미래커리어대학의 6개 전공별 지역 봉사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의 교육을 통해 배워온 기술들을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로 쓰이게끔 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이를 통해 우리 대학 미래커리어대학의 홍보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자긍심 함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플로깅은 스웨덴 북유럽을 중심으로 국내까지 확산된 운동으로, 환경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 건강을 위해 걷기 운동을 하는 이들이 늘어남과 동시에 유행이 시작됐다.

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를 최대한 많이 주우며 목적지까지 가벼운 조깅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조깅 시간을 고려하고, 쓰레기봉투와 장갑, 집게 등을 함께 챙겨 출발해야 한다. 이때 일회용 쓰레기봉투 대신 예코백, 쓰지 않는 가방, 종량제 봉투 등을 준비하고 대화용 장갑을 사용하면 환경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환경을 생각하는 2030대 사이에서 유행했으며 SNS 챌린지로도 확산돼 연예인 신민아, 선, 김혜수, 이시영 등도 참여했다.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는 현대사회에 맞게 줍깅이라는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행사를 통해 지구촌과 환경에 대한 우리 대학의 높은 관심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김규리 기자
Orlarb1f1@gmail.com

창의성과 완벽성을 동시에 입증하다

게임학과, G-STAR에서 최고의 작품을 선보이다



▶ 게임학과 졸업작품전시회

우리 대학 게임학과는 지난 11월 16일부터 4일간 개최된 국제 게임전시회 2023년 G-STAR에서 소속 학생들의 졸업 작품을 전시했다.

우리 대학 게임학과 학생들은 1기 졸업생부터 시작해 17년간 G-STAR에서 매년 졸업작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전시에 참여했다.

하지만 이번 G-STAR에서는 참여한 대학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참여해 많은 관람객과 게임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특히 우리 학생들의 졸업작품 중 '우물 안 개구리', '픽서' 게임은 웬만한 게임 개발사에서 개발하는 게임 가운데서도 그보다 훨씬 좋은 퀄리티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를 증명하듯 많은 관람객이 우리 학생들이 만든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해 장시간 줄을 서서 기다리는 등 큰 호응을 얻었으며 두 작품은 특별하게도 다른 공모전에서도 좋은 성적으로 수상을 하면서 게임의 창의성과 완성도를 인정받은 바 있다. 여기서 코딩 작업이라는 개발자들의 일을 '퍼즐'로 승화시킨 '픽서' 게임은 오픈마켓에 출시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물 안 개구리'는 MHN 스포츠에서 '최고의 가족 게임'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게임은 리듬에 맞춰 한 발 한 발 전진해 목표지점까지 향하는 개구리들의 경주를 다룬 레이스 장르 게임으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친숙한 '개구리'라는 캐릭터를 '견기'라는 요소를 통해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친근하게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작 방식은 간편하면서도 독특했다. 마우스로 방향 설정을, A-D 키를 활용해 한 발씩씩 걸음을 걸을 수 있었으며, 점프와 '헛바닥 공격'(마우스 클릭) 등 상대를 방해할 수 있는 요소들도 있었다. 이는 향후 크로스 플랫폼(메드/모바일)으로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했다. 특히 (4인) 멀티플레이어를 통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것은 신의 한 수라는 평가다.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도 가족,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흥겨운 분위기의 게임 외적 즐거움까지 선사하며, 이를 단순히 시정하는 관람객들도 분위기를 즐기면서도 게임에 몰입하게 만드는 독특한 설계



▶ 동서대학교 게임학과 전시 부스

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줬다. 추후 DLC 발매를 통한 신규 맵-모드 추가,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등이 과금 요소로 활용될 수 있었으며, 게임 자체 또한 시중에 판매해도 이상하지 않을 완성도를 자랑했다. '즐거움'이라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주는 캐릭터 IP의 사업적 확장 가능성 또한 눈여겨볼 점이라고 평가받았다.

G-STAR 전시 기간 중 우리 대학 게임학과 전시 부스를 방문한 졸업생 선배들은 해가 갈수록 졸업작품의 완성도가 좋아지고 있다며 졸업생들과 회사 개발실에서 만나 재미있는 게임들을 같이 개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후배들을 격려했기도 했다.

2004년부터 창의적이고 실무에 강한 융복합 게임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 게임학과는 2인제 교육과 가치 산업 중 하나인 게임산업이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실무에 강한 인력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게임 제작과 관련된 기술들은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통해 게임산업을 넘어 교육, 훈련, 제조, 의료 분야까지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고자 게임 프로그래밍, 게임 그래픽, 게임기획 분야의 우수 인재를 길러내고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2008년 '문화콘텐츠 특성화교육기관 사업' 선정(3년간 7억 원 지원), 2009년 'CR 사업' 선정(3년간 13억 원 지원), 2009년 지식경제부의 '첨단 아카데미 게임 지역혁신센터 사업' 선정(10년간 130억 원 지원), 2014년 '대학 특성화 사업' 선정(5년간 75억 원 지원) 등 전국 최고 수준의 국가 지원금을 받아 첨단 기술력과 첨단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학생들에게 정규 교과과정 외에도 실무자 초청 세미나, 장기 집중 워크숍, 산학 프로젝트 등의 다양한 학생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고의 게임 개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게임학과는 2008년 2월 1기 졸업생 배출을 시작으로 현재 많은 졸업생이 국내외 게임 개발사에서 활발한 창작활동을 하고 있으며 재학생들 또한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박상욱 기자 park20601716@gmail.com

건강한 먹거리, 솟아나는 마음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사를 합시다



▶ 해운대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우리 대학 식품영양학과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제5회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지원센터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VR을 활용한 안전한 식품 구입 및 보관 지도 교육' 프로그램으로 최우수상(1위)을 수상했다.

우리 대학의 식품영양학과는 인간의 육체적 성장 발달과 직결돼 있는 식생활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종합적인 생명과학의 한 분야로서 합리적인 식생활을 도모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식품과학 분야와 섭취 후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영양학 분야의 최신 과학적 기초이론과 연구 방법 및 응용지식을 교수, 연구하는 학과다.

이것은 식약처가 매년 전국에서 236개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와 67개의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대상으로 급식지원 우수사례를 공모해 평가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우리 대학 식품영양학과가 수상한 프로그램은 VR을 활용하여 아동 스스로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한 교육 콘텐츠로서, 가상현실로 구현한 식료품점 및 조리실에서 식품 구입부터 식품 보관까지 체험자가 스스로 재미있게 학습이 가능하도록 제작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3년에 개소했고 2020년부터 우리 대학 식품영양학과가 위

탁해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위한 위생 및 영양관리, 식단 또는 레시피 제공, 컨설팅, 대상별 식생활 교육 등 현장 맞춤형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2년 하반기부터는 부산광역시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사업을 수탁해 노인 요양 시설·돌봄 시설, 장애인복지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식품영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이현숙 센터장은 "해운대구 센터가 올해 상반기 부산시 최우수센터상을 받은 데 이어 하반기에 식약처 최우수상까지 받아 기쁘고 자랑스럽다. 이것은 우수한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해 센터 선생님들이 한마음으로 고쳐 준 덕분이다. 또 우리 대학 LINC 3.0사업단의 지원 덕분에 기술적으로 수준 높은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지금까지 VR을 접목한 영양 및 위생안전 교육 콘텐츠를 총 4건을 개발했고, 지역센터 및 유관기관에도 공유하여 어린이 교육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 센터는 앞으로도 특화된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부터 노인, 장애인까지 안전한 급식 운영과 영양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욱 기자 park20601716@gmail.com

끝없는 도전으로 마침내 꿈을 이룬다

방송영상학과 15학번 '임늘솔' 아나운서



▶ KBC 8시 뉴스 진행

안녕하세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방송영상학과 15학번 졸업생 임늘솔입니다. 저는 현재 광주전남 SBS/KBC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으며 매일 저녁 8시 뉴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대학 생활은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20살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대에 입대했던 저는 군 전역 후 바로 복학을 하지 않고 1년 동안 꿈을 찾기 위해 휴학을 결정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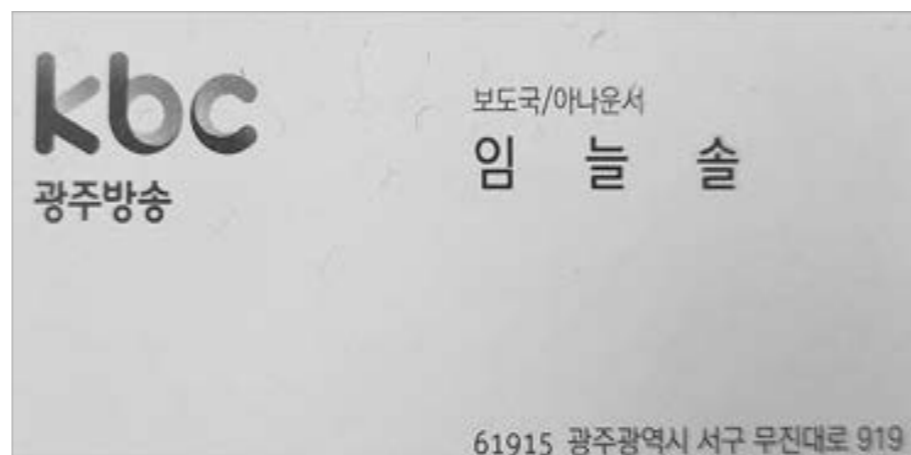
제가 휴학을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는 '빨리 학교를 마치고 취업해야지, 복학하면 혼자 수업 들을 수 있겠어?', '휴학하고 하는 경험이 도움이 될까?' 등의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휴학 후 서울로 올라가 예능 FD에 도전했습니다.

예능 FD를 하는 6개월 동안 서울 MBC에서 연예대상, 연기대상, 세모방 등의 프로그램에서 학교에서는 배우기 힘든 경험들을 겪으면서 성장할 수 있었고 현장에서 있는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나운서'라는 새로운 꿈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나운서는 기본적으로 표준어를 구사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하지만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던 저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제가 아나운서에 도전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는 냉정한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방대 출신이 아나운서를 할 수 있어? 동서대 출신의 아나운서가 없는데 가능해?'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어려움과 부정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이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아나운서 학원을 다니면서 꿈을 키우기 시작했고 2018년 1학년 2학기에 는 한 학기 동안 월, 화, 수, 목은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고 금, 토, 일엔 서울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자면서 스타디움 및 대외활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12월에 STN 스포츠라는 방송국에서 스포츠 캐스터로 데뷔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학업적인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2학년이 되는 2019년에는 방송을 하지 않고 학업을 몰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3학년이 되는 2020년 4월에 울산 TBN(교통방송)에 라디오 진행자 시험에 도전했는데 아직 대학생이라 메인 진행자 자리는 어렵고 취재 리포터의 역할을 주겠다는 답을 받아서 매주 일요일마다 울산의 유적지와 문화재를 직접 취재하고 소개하는 방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 울산 TBN의 경험을 바탕으로 11월에는 부산·경남 SBS/KNN에서 매주 목요일에 영화나 드라마를 소개하는 라디오를 할 수 있



▶ 광주전남SBS/KBC 아나운서 명함

는 기회가 찾아왔고 졸업하는 해인 2022년 1월까지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다양한 방송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아나운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마음먹고 그러지 못해 꾸준히 도전해 커리어커리어 대학원에 진학해 학업을 이어갔고 학업과 함께 YTN 사이언스에서 아이템 선정 및 출연진 섭외, 대담 대본 작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작가 생활도 병행했습니다.

저는 학업과 일을 같이하면서 아나운서 시험에 꾸준히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나운서가 되기까지 10번 이상의 낙방이 있었습니다. 많은 불합격 문자를 받으면서 위축이 되기도 했지만 결국 아나운서가 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떨어지는 횟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도전하는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올해 1월, LG 헬로비전이라는 케이블 방송국에서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전남, 전북 6개 지역의 뉴스 담당 및 지역 정치인, 교수들과 대담을 진행하는 아나운서가 됐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9월 광주·전남 SBS/KBC로 이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에게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끊임없이 경험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FD부터 아나운서가 되기까지 불필요한 경험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경험이 또 다른 경험을 만들어주고 경험에서 얻은 능력이 제 스스로를 더 성장시켜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꿈이 확실하다면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취업은 99번 떨어지더라도 한 번만 붙으면 성공하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노력을 올바른 방향으로 잡았고 있다면 원하는 결과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꾸준히 도전하셨으면 합니다. 또 주변의 만류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목표를 정하시길 바라고 정말 후회 없이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믿어야 면접관도 여러분을 믿고 뽑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본인의 방향성을 정하지 못했다면 스스로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시길 추천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소소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욱 기자 park20601716@gmail.com

취업 책 소개

패션, 그들의 위대한 역사를 읽다



▶ 책 패션의 탄생

현재 많은 패션들이 유행하는 지금, 유명한 브랜드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성공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지는 않은가? 그러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책이 있다. 바로 패션의 탄생이라는 책이다. 여러 패션 디자이너들이 어떠한 고난을 겪고 유명한 패션 브랜드를 만들어 냈는지 그 스토리들을 담은 책이다. 이 책을 읽어보면서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도 그럴 것이 유명한 브랜드의 대부분은 디자이너의 이름을 따오는지라 알고 있었지, 대부분 디자이너는 브랜드명을 보기 전까지는 대체로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였다.

이 책의 저자인 강민지 패션 일러스트레이터는 이 책을 1년 동안 만들었다고 한다. 매일 10시간 이상의 자료 조사와 공부, 그리고 그림 작업을 위한 시간과 매일 도서관에서 사다시피 하여 참고 자료만 200여 건이 넘는다고 한다.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 일반인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표를 정하시길 바라고 정말 후회 없이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믿어야 면접관도 여러분을 믿고 뽑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본인의 방향성을 정하지 못했다면 스스로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시길 추천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소소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그중 기억에 남는 디자이너들

뽀아보자면 가브리엘 사넬을 뽑을 것 같다. 이름에서 봤듯이 고급 브랜드의 상징이자 여성들의 로망 유명 패션 브랜드 사넬의 창립자이다. 패션의 역사는 사넬을 전후로 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패션사와 현대 여성사에서 그녀가 이루어낸 업적과 가치는 실로 어마어마하다. 이러한 거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프랑스에서 어렵고 가난한 유년기를 보냈다. 어머니를 잃고 보육원에서 자랐으며 아버지는 찾아오지않고 여동생마저 병으로 잃고 말았다. 지독하고 외로운 삶이지만 자녀들의 교육 위해 바느질을 배우고 점차 성인이 되어가며 어린 시절을 잊으며 살았다.

그녀가 18세가 되던 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보조 재봉사로 일하며 카바레라는 장소에서 노래를 부르며 돈을 벌었다. 그녀의 패션 감각이 처음 사람 의 이목을 끈 건 사넬이 자신이 쓸 모자를 만들면서부터였다. 여러 사람들의 소문으로 인해 귀부인들 사이에서 대인기가 됐다. 이를 계기로 파리의 거리에 서 모자를 팔기 시작했다. 당시의 화려한 모자와 달리 심플하며 최소한의 장식만 달린 그녀의 모자가 유행을 뒤집어 놓으면서 그야말로 그녀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사넬의 원피스 또한 당시에는 혁명을 일으켰다. 여성복에는 쓰지 않는 끈 저지예다가 무릎까지 올라간 스커트, 넉넉한 라인의 드레스가 모두 사넬이 최초로 탄생시킨 것이다. 일에만 몰두하다 찾아낸 향수 NO.5, 많은 나이들 먹고도 활동력을하는 등 패션계에 수많은 업적을 쌓았다. 이 말고도 다양한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의 인성과 역사를 담은 이야기가 많다. 또한 중간중간 많은 패션 일러스트들이 삽입 되어있어 후시 패션디자이너나 일러스트, 패션브랜드에 관심이 있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김우진 수습기자

책 속의 풍경 -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 10주년 특별판

재미없을 수 없는 단편소설집



- 책 제목: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 10주년 특별판
- 책 저자: 편역: 김애란 외 3명
- 출판사: 문학동네

바쁜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레 책과 멀어진 삶을 살게 된다. 기술의 발전으로 효율을 중요시하게 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특히 소설과 같은 서적은 자기계발이나 경제·사회 서적에 비해 읽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소설은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안내한다. 그 길에서 작가가 부풀어오른 이야기를 만나는 데 우리가 평소 생각지 못한 부분을 건드린다. 이야기 속 인물, 장소, 그리고 다양한 사건들은 우리 삶의 스펙트럼을 넓혀준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겪은 경험은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해 준다. 외에도 소설이 주는 이점은 많지만 무엇보다 책이 재미를 들이기 쉽다. 내년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독서라면 소설 읽기에 맛을 들여 보면 어떨까. 처음부터 기나긴 장편 소설을 읽기 부담스럽다면 단편소설부터 조금씩 읽어

보는 것도 좋다. 짧은 분량으로 시간 날 때 틈틈이 읽기 좋기 때문이다. 분량은 짧지만 우리네 인생을 다채롭게 담아낸 이야기를 볼 때 간결함에서 주는 강력한 여운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소개할 책은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 10주년 특별판'이다. 짧은 작가상 1회부터 8회까지의 수상작들 중 작가들이 직접 선정한 추천작 일곱 편이 담겨 있다. 젊은작가상은 짧은 작품을 널리 알리자는 취지로 제정된 문학상으로 그동안 43명의 작가와 63편의 수상작이 발표됐다. 이 책에는 일곱 가지 단편소설이 담겼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몇 작품을 소개하고자 한다. 단편소설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가장 먼저 꼽은 작품은 마지막 순서에 있는 '호수-다른 사람'이다. 평소 추리소설을 좋아해 이 작품단의 부드러우면서도 깊은 스텝이 즐기게 됐다. 서스펜스를 단편으로 멋지게 뽑아낸 이 작품은 유사한 범죄를 현실적이면서도 입체적으로 표현했다. 작품이 지향하는 바는 다소 직설적이다. 그러나 이와 상관없이 흘러가는 이야기를 따라가기도 재미있는 작품이다. '민영'은 외곽진 아파트 주변 호수에 반죽을 상태로 발견했다. 사고 전날 민영은 친한 친구 '진영'에게 '호수에 두고 왔어, 호수에'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사고 이후 민영의 남자친구 '이한'은 진영에게 계속 호수에 함께 가보라고 재촉한다. 진영은 민영의 사고 자리를 볼 용기가 나지 않는다는 핑계로 거절하지만 실은 그와 함께 하기 싫어서였다. 진영은 이 사고의 범인을 이한이라 생각한다. 그는 왜 진영에게 민영이 자신에 대해 무슨 말을 한 것이 없는지

재차 물어보는 것일까? 민영이 급히 숨졌던 팔의 명은 무엇일까? 진영만이 느끼는 이한에 대한 감정은 진실일까? 이야기 끝까지 확실한 증거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향한 분노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주변에 좋은 사람만 있다고 믿고 싶지만 세상은 그리 나 주질 않는다. 이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이들은 뉴스만 봐도 너무나 많다.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민영의 사건 중심으로 입체적으로 그린 '호수-다른 사람' 몇 번을 읽어두자. 이 밖에도 깊은 인상을 줬던 작품은 '절반 이상의 하루'였다. 여행을 가서 만났던 '다카하시 하루오'라는 일본인 친구의 이야기이다. 인도에서 주인공과 만나 친해진 하루오는 여기서도 나타나고 저기서도 나타나고 예측하지 못하는 곳에서 등장하고 사라졌다. 같이 걷다가 무심히 바다를 보았는데 바다에서 울음과 벗고 수영을 하고 있더라면 그 사람이 하루오였다.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과는 다르게 예외적인 인간성과 특이함을 가진 하루오를 이야기한다.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새처럼 살고 싶은 마음은 한 편에 자리잡혀있다. 하루오는 바쁜 일상 속 우리의 '자유'라는 의식을 다시 일깨워 준다. 마치 나도 함께 하루오와 여행을 다녀온 것 같았던 '절반 이상의 하루오'. 기분을 환기시키기엔 제격인 작품이었다. 재미있는 작품 중 또 유독 재밌는 작품만을 추천 소설집, 그래서 재미없을 수가 없는 소설집,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 10주년 특별판'. 일상의 고민은 잠시 뒤로하고 이 책으로 마음의 여백을 만들어 주면 어떨까? **정이나 수습기자**

이달의 영화 - 서울의 봄



- 영화 제목: 서울의 봄
- 영화 감독: 김성수

최근 심박수 켈린지, 분봉 켈린지 등 영화를 본 대다수의 한국인들의 분노를 사게 한다는 이번 <서울의 봄>은 나 또한 친구의 추천으로 같이 보게 됐다. <극제 시장>을 거의 마지막에 한국 역사를 배경으로 한 논픽션 영화는 거의 안 봤는데, 이번 <서울의 봄>은 달랐다. 말 그대로 침체된 한국 영화 시장에 봄을 불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영화에 이미 마음을 돌린 나는 거의 기대를 안 하고 갔는데, 막상 보니 예상외로 너무 재미있는 작품이었다. 특히 군 입대 전이라 그런가 군대 관련 영화라 불만이 잘 됐고 주먹을 불끈 쥐게 만드는 실화, 배우들의 생동감 넘치는 연기, 긴장감을 놓지 못하게 만드는 연출, 이 삼박자가 잘 어우러져 좋은 작품으로 탄생했다. 김성수 감독의 신작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서울에서 일어난 반란군 세력의 반란 즉 12·12 군사 반란을 막기 위한 기밀로 감춰진 9시간을 영화로 그렸다.

12월 감춰진 9시간, 봄은 없다

12·12 군사 반란은 군부의 실세였던 전두환과 노태우 등이 중심으로 일으킨 사건이다. 전두환이 이끌던 군부 내 사조직인 '하늬회'를 중심으로 신군부 세력이 당시 대통령 최규하의 재가 없이 휘하 부대 병력을 동원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강제 퇴진시키는 과정에서 군사 반란이 생겼다. 이후 이들은 군 내부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1980년 5·17사건을 일으켜 새로운 권력까지 획득했다. 영화는 1979년 10·26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된 시점부터 시작한다. 최규하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정승화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다. 정승화는 군 장악을 위해 윤성민, 장태완, 정병주 등을 중용하여 지휘권을 개편했다. 군에 대한 지휘 체계를 확보하고 정치를 이끌어가는 데 핵심 역할을 담당하려 했던 정승화, 하지만 하나회는 이를 가만두지 않았다. 전두환은 정승화가 김재규의 내란에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정승화를 강제 퇴진시키기로 계획해 11월 중순 유학성, 황영시, 차규현, 노태우 등과 모의한 뒤 12월 12일 작전명 '생일집 잔치'를 실행한다. 결국 최규하는 13일 새벽, 정승화의 연행을 재가할 수밖에 없었고, 노태우와 정호용은 각각 수경사령관과 특전사령관에 취임했다. 당시 군부 반란의 주도 세력에 의해 장악됐다. <서울의 봄>은 이 여정을 아주 촘촘히 그린다. 이미 다 아는 결말이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숨죽이고 몰입하게 만드는 연출이 인상적이다. 처음 김성수 감독이 시나리오를 받았을 땐 다소 다큐멘터리처럼 느껴졌고 연출을 거부했으나, 자꾸만 생각이 나서 결국 시나리오를 수정해 제작하게 됐다.

실존 인물들의 이름을 한두 글자씩 고쳤다. 전두환은 전두광, 노태우는 노태건으로.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실화를 그대로 옮기는 것 보다는 상황 속에서의 인물들의 모습,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습과 기록에 드러나지 않은 인간 군상을 보여주기에 노력으로 만들었다. 반란군과 진압군이 목표를 위해 필사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교차시키며 몰입력을 높인 것이 <서울의 봄>의 특징이며 두 집단의 치열한 대립은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긴장감을 자아냈다. 연출 의도에 맞게 얼룩진 정지판, 다양한 인간 군상을 드라마틱하게 그리는데 성공했다. 탐욕의 화신 전두광, 반란군에 맞서 정의를 지키려는 이태신을 비롯해 저마다 욕망과 신념을 위해 행동하는 개인을 지켜보는 재미가 있다. 쿠키 영상은 따로 없지만 실제 하나회 단체 사진이 영화 끝에 등장한다. 전두환과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임한 1993년 초까지 12·12 군사 반란은 집권 세력에 의해 정당화됐으나, 김영삼 정부가 출범 후 국민들의 요구로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였다고 사건으로 규정했다. 영화 <서울의 봄> 관객 중 무려 57.9%를 젊은 층인 20~30대가 차지하여 언론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다. 물론 영화가 재미있던 것도 한몫했다고 생각하지만, 극 중 최규현 대통령의 말처럼 "이런 정치는 안 해야 하는데"처럼 우리나라의 정치판에는 빠져버린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서울의 봄>은 이미 지난 문재이만 해도 말고 다시는 같은 반복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불안정한 상황이 20·30세대에 영항을 주어 이러한 상황으로 오지 않았나 싶다. **김우진 수습기자**

선물 하나로 센스 만점 되기!

카카오톡 선물하기 추천 아이템



▶<피소피소 캔들> ▶사진 출처-렘

연말이 되면 준비할 게 많다. 물론 추위를 대비하거나 연말 정산 등의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 줄 '홀리데이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연말 일과 중 하나다. 사랑하는 사람, 굳이 연인이 아니더라도 '사랑' 하면 생감이 가족과 친구들, 고마웠던 이들에게 연말이라는 핑계로 마음을 전할 때가 가장 좋은 때다. 그러나 언제까지도 캔들, 목도리 같은 흔한 선물만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선물하면 무조건 '센스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선물들을 추천하려 하니 이번 겨울,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간편하게 센스 있는 친구가 돼 보자.

렘

렘은 컬러풀하지만 촌스럽지 않고 세련된 디자인의 캔들을 판매하는 브랜드다. 기본 전환이 되는 포인트 아이টে일로 캐주얼 라이프를 선물하며, 편리한 사용감으로 즉각적인 리프레시를 경험하게 해 준다. 향이나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이에게 선물하면 좋은 아이টে일이다. 보통의 캔들이 1~2만 원이라면 렘의 캔들 제품은 3만 원 정도의 가격대로 구성된 제품기에 직접 구매할 때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바우하우스 트리오 캔들>이나 <피소피소 캔들>이 제일 유명한 제품이다. 또 렘 캔들은 다양한 모양의 캔들을 쌓아서 사용할 수도 있다. 삼각형 모양의 캔들 세 개를 선물하며 크리스마스 트리 느낌을 줘도 재미있는 선물이 될 것이다. 완전히 홀리데이 선물 느낌을 내고 싶다면 <크리스마스 테이블 캔들 세트>나 <크리스마스 한정판 출시된 <크리스마스 피소피소 캔들>을 선



▶<Mushroom Lamp> ▶사진 출처-로파서울

물매 보자. 연말 파티에 캔들 하나만 있어도 좋은 분위기가 연출될 것이다. **# 로파서울** 유니크하고 트렌디한 선물을 찾는 사람이라면 로파서울을 추천한다. 유행에 민감한 이들에게 이미 한번 정도는 구매 경험 갖고 있는 브랜드일 것이다. 감각적인 큐레이션 통해 국내 작가부터 비롯된 작품, 해외 디자이너 제품까지 다양한 제품을 만날 수 있다.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 <요거트볼 세트>다. 무게감 있는 도자기 그릇에 실크로 꾸며진 디자인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0대 후반부터 30대에게 선물할 예정이라면 <미니 와인잔 세트>도 좋은 선물이 될 것이다.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이에게 선물할 것이라면 <Mushroom Lamp>나 <Silver Flower Lamp>, <White Mini Lamp>와 같은 인테리어 조형도 추천한다. 제품뿐만 아니라 포장 패키지도 디자인 박스기에 포장을 뜯는 순간부터 좋은 기분을 선물하는 센스 있는 아이টে일이다.

포식스먼스

다음으로는 포식스먼스 제품이다. 포식스먼스는 컬러풀한 퍼 랩프로 유명세를 알렸으며, 감각적인 인테리어 아이টে일을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다. 가격대가 있는 편기에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을 때 가장 기분 좋은 제품이다. 포식스먼스 제품 한두 개만 있어도 트렌디한 인테리어를 연출할 수 있고, 마치 감성 있는 카페와 같은 분위기를 풍기기 때문에 감성적인 인테리어에 민감한 이에게 선물하면 좋을 것이다. 특히 <cushion



▶<요거트볼 세트> ▶사진 출처-로파서울

mirror>나 <black cat pillow cover>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기에 특히나 추천한다. 올해까지는 실버 제품이 유행할 것 같으나 <cushion mirror> 메탈 버전이나 <silver hanging lamp>를 선물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선물 하나로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포식스먼스 브랜드를 사랑하는 이에게 선물한다면 아무래도 <furry lamp>를 선물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컬러감이 다양해 취향에 맞게 선물하기에도 좋다. 발코너에 관심 있는 이에게는 <ribbon pin>을 함께 선물하고, 혹은 초록색 furry lamp와 꼬마전구를 선물해 크리스마스 트리 느낌을 연출하는 방법도 있다. 다양한 감각적인 센스를 발휘해 세상에 하나뿐인 선물을 준비해 보자. **# 바사커피** 바사커피는 커피계의 명품이라고 불리는 커피로, 승무원들이 싱가포르에서 꼭 사오는 '승무원램'으로도 유명한 제품이다. 드립커피 중에서는 고가에 속하는 고급 선물로, 연령대가 높은 이들에게 선물하기에도 좋다. 패키지부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바사커피의 모두가 '내게 맞는 커피를 찾아' 이기 때문에 각각의 입맛에 맞게 옵션을 선택해도 좋을 것 같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최대 장점인 선물을 받는 사람이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이용하자. 편지에 간단하게 커피 종류별 설명을 적어 주면 더 센스 있는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다. 부드러운 산미를 즐기는 이에게는 <세빌 올렌지 커피>나 <싱가포르 모닝>, 목직한 느낌을 선호한다면 <멜라카 초콜릿>, <밀라노 모닝>, 부드



▶<cushion mirror> ▶사진 출처-포식스먼스

러운 달콤함을 선호한다면 <시그니처 1910>, <카라멜로 모닝>, <스위트 맥시코>를 추천해 주자.

그랑랜드

향수, 디퓨저, 방향제 같은 선물은 편하지만 겨울 하면 꼭 떠오르는 선물이다. 편한 선물에 트렌디함을 살짝 추가하면 이는 충분히 특별한 선물이 될 수 있다. 무난하지만 특별함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그랑랜드의 <사계> 제품을 추천한다. 사계는 향수 원액을 흡수한 암석을 담은 주머니 형태의 방향제 제품으로, 옷장이나 차량 등 비교적 좁은 공간에 자연스럽게 향을 채워 준다. 부담스럽지 않고 무난한 향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마린 오기드>, <릴리 오렌>, <트와 베르>, <스파이시향과 우디향을 좋아하는 이들에게는 <구장>과 <럼바>를 추천한다. 향은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지만 수많은 기억과 감정을 각인시킨다. 잔향이 맴돌 때마다 나를 생각하게 해 주는 사랑스러운 선물이 될 것이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간단하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요즘이다.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데에는 어떤 선물이 합해해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센스 있는 선물과 함께라면 더욱 특별하게 기억에 남을 것이다. 물론 마음을 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있다. 말 한 마디로 사랑, 감사 등 딱딱오르는 마음을 전해 보자. 선물과 함께 입에서 나오는 '사랑해'라는 말. 분명히 몇 번의 해가 지나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될 것이다. **김규리 기자** Orlarbf@naver.com

축제·공연 소식



광안리 M 드루클라이트쇼
•기간: 2023. 12. 1.(금)~2023. 12. 31.(일)
•장소: 광안리해변
•주최: 수영구청
•입장료: 무료



제 10회 해운대 빛 축제
•기간: 2023. 12. 2.(토)~2024. 1. 31.(수)
•장소: 해운대해수욕장, 해운대광장, 해운대시장 방면
•주최: 해운대구, 해운대빛축제조직위원회
•입장료: 무료



2023 부산국제아트페어
•기간: 2023. 12. 7.(목)~2023. 12. 11.(일)
•장소: BEXCO
•주최: 유니세프, 부산국제아트페어
•입장료: 일반 10,000원, 학생 5,000원



2023 광복로 겨울빛 트리축제
•기간: 2023. 12. 8.(금)~2024. 1. 14.(일)
•장소: 부산 광복로, 광복중앙로 일원
•주최: 부산광역시 중구
•입장료: 무료



넌버벌 퍼포먼스 <넌타>
•기간: 2023. 12. 13.(수)~12. 17.(일)
•장소: 쇼박스아트 신한카드홀
•주최: 피엔씨퍼포먼스
•입장료: R석 66,000원 S석 55,000원



제36회 해운대 북극극축제
•기간: 2023. 12. 15.(금)~12. 16.(토)
•장소: 해운대 해수욕장 일원
•주최: 부산일보사
•입장료: 무료



2024 부산 시민의 종 타종행사
•기간: 2023. 12. 31.(일)~2024. 1. 1.(월)
•장소: 용두산공원
•주최: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입장료: 무료

한 해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키워드로 돌아보는 2023년도



▶교사들의 시위



▶애니메이션 '더 퍼스트 슬램덩크'



▶2022항저우아시안게임

▶사진출처 - REUTERS

한 해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이때, 대개 우리는 마음이 들뜨기 시작한다. 2024년도에는 우리에게 어떤 순간을 안겨줄지 벌써 기대감이 부풀다. 이렇게 새로움을 맞이하는 일은 언제나 설렌다. 하지만 시작을 잘 하기 위해선 그 전의 마무리를 잘 하고 반성해 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

바쁘게 지나가는 삶의 속도에 지쳐 올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 당신을 위해 한 해 동안의 사회적인 주요 이슈를 되짚어 보며 대학생으로서 내년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맞이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그래서 2023년도를 행복하게 맞이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만나이 통일법

2023년의 막을 올리면서 개정된 법안은 '만나이 통일법'이었다. '만 나이 통일'은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나이가 혼용되는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 온 사업이다. 한국에서 나이를 세는 방식

은 크게 세 가지다.

'만 나이'는 태어난 시점을 0살로 간주하고 생일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난 때마다 한 살씩 나이를 더하는 방식이다. 전통적으로 쓰는 나이 셈법인 '한국식 나이'는 태어나마자 1살로 간주하고 매년 1월 1일 한 살씩 나이를 더하는 방식이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계산법이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됐다. 한국식 나이를 주로 써 온 우리들의 나이가 1~2세 줄어들었다. 오히려 나이가 적어져 좋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다만 초등학교 취학 연령, 병역 의무 연령, 청소년보호법상 담배 및 주류 구매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은 예외로 적용되는 것도 유념해 봐야겠다.

#교권침해

한낮 온도 30도가 넘는 무더운 여름 날씨가 겹쳐 온갖 교사가들이 서울 광화문에서 모였다. 집회의 시작은 서초초등학교

교사 자살 사건이었다. 교사를 꿈꾸는 우리 대학 학생들은 이 사건을 더욱 주목하여 봤을 것이다. 올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한 젊은 교사가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이에 많은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 혹은 학생들의 지도 불이행 그리고 업무 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사망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이 겪고 있었던 여러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10년 전만 해도 교사는 우수 학생들의 선망의 직업이었다가 작금의 현실로는 오히려 고대 졸업생들 중 직종을 바꾸는 이들이 늘고 있다.

올해 5월에 발표된 '전국 국공립 초·중·고교 교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공립 교사 589명이 교단을 떠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배 증가한 숫자다. 하지만 아직 교사의 권리를 보호할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시피 한 것이 더욱 문제이다. 교권과 학생 인권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개인의 인성 함양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조명된다.

#일본 애니메이션

최근 코로나19 이후 극장가의 발길이 줄어든 가운데 유독 열풍인 장르가 있다. 바로 일본 애니메이션이다. 1월 개봉한 극장판 애니메이션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열풍의 서막을 올렸다. '슬램덩크'는 개봉 2주일 만인 1월 17일 100만 관객의 고지에 올랐고, 3월 5일에는 누적 관객 수 381만 명을 기록해 국내 개봉 일본 영화 중 최고 흥행 기록을 갈아치웠다. 인기 비룡은 3월 8일 극장에 걸린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애니메이션 '스즈메의 문단속'이 넘겨받았다. '스즈메의 문단속'은 단 6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동원했고, 4월 14일에는 '슬램덩크'를 제치고 국내 개봉 일본 영화 최고 흥행작 자리에 올랐다. 또한 OTT 플랫폼인 왓차에서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일본 애니메이션 시청 점유율이 작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다. 이전에도 '너의 이름은', '귀멸의 칼날' 등 일본 애니메이션의 인기는 좋았지만 올해만큼 폭발적인 결과를 선보인 적은 처음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일본 애니메이션의

흥행 요소를 잔잔한 힐링, 섬세한 작업이 느껴지는 영상미, 그리고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스토리 등으로 꼽았다. 이외에도 최근 연속된 한국 영화의 흥행 부진으로 인해 더욱 일본 애니메이션이 주목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

올해 열렸는데 왜 2022년이나 묻는다면 사실 이번 아시안게임은 애초 2022년 9월에 개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서 대회가 1년 연기됐다. 다만 대회조직위원회는 대회 전풍을 이어가는 의미에서 이름은 그대로 2022를 쓰기로 했다. 올해 9월 24일부터 10월 8일까지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2022항저우 아시안게임. 우리나라는 총 867명의 한국 선수가 출전해 39개 종목에서 금메달 42개, 은메달 59개, 동메달 89개로 총 190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특히 이 대회에서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e스포츠 국가대표팀의 출격식이 8월 28일에 열렸다. 리그 오브 레전드 국가대표팀은 김정균 감독을

필두로 페이커 이상혁 선수, 제우스 최우재 선수, 카니비 서진혁 선수, 초비 정지훈 선수, 틀러 박재혁 선수, 캐리어 류민석 선수로 구성됐다. 이번 대회에서 e스포츠 국가대표팀이 수확한 총 메달은 금메달 2개, 동메달 1개라는 쾌거를 이뤘다.

#마치며

우리 대학 학생들은 올해를 돌아본다면 가장 생각나는 일은 무엇인가? 위의 이슈 외에도 연쇄 물자마 칼부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독감 유행 등 많은 사건이 펼쳐졌다. 아직도 뉴스에는 우리의 마음을 뒤흔치게 해 주는 일보다 살 떨릴 정도로 안타까운 사건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런데도 우리가 내년을 힘차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자신의 주변을 둘러보면 행 많이 찾을 수 있다. 2024년도에는 더욱 행복하고, 기쁜 소식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바라며 우리 대학 학생들의 앞날에도 꽃길만 가득하길 바란다.

정년연 수습기자 jndmssdud@gmail.com

새해 맞을 준비, 제대로 하고 있어?

다가오는 2024년, 어떻게 준비할까?



▶다이어리를 쓰는 사진

▶사진출처 - pixabay



▶일출을 느끼는 사람

▶사진출처 - pixabay



▶도시의 야경 사진

▶사진출처 - pixabay

우리의 인생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시작과 끝으로 구성된다.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써 삶이 시작되고 죽음을 통해 끝을 맞이한다. 그러나 미시적으로 바라볼 땐 다르다. 우리 인생엔 수많은 기회가 존재한다. 즉, 수많은 시작과 끝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관련한 르네사로 한 해를 맞이하고 마무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을 잘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엔 새로 맞이할 새해인 2024년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얘기해 보려 한다.

#마음가짐

우리는 대개 새해맞이 기념으로 새해 목표를 세우기도 한다. 새해를 준비하기 위한 초반 단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표를 세우기 이전에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마음가짐을 바로 하는 것이다. 내가 세운 계획이 대개 3월 만에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다. 흔히 작심삼일이라고도 한다.

계획들이 그저 작심삼일만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제대로 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 우선 너무 들뜨지 않아야 한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돼서 마음이 들뜨 수 있지만, 그런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다간 현실적인 것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채 이상적인 모습들만 상상해 계획을 세우게 된다. 그렇게 되면 실현하기 힘든 계획이 돼 버린다. 현재 현실적인 나의 상황들을 제대로 고려해 보고, 실현할 수 있는 시간과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자.

그리고 계획을 너무 완벽하게 시작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늘 정확한 시간과 기간에 맞춰 계획을 실행하려 한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는 제대로 시작해야지' 또는 '지금은 3시 30분이니까 4시에 제대로 시작해야지', 아니면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니까 조금만 미루자'는 등의 핑계거리를 말이다.

또 한 가지 방법을 주자면 새해가 시작된 후에 계획을 실행하면 낫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비수하다. 그렇기에 새해를 맞이해 헬스장 PT를 등록하려고 한다면,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신청해서 자리가 없는 등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인생은 선착순임을 잊지 말자. 새해를 맞이하기 전, 12월 중순이나 말부터 내가 세운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 충분히 시행착오를 겪는 시간을 가지고 1월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자는 것이다.

#목표와 장기 계획

심호흡을 하고 들뜬 심정을 가라앉히자. 마음가짐을 충분히 가졌다면, 목표를 세울 차례다. 이는 계획을 작성하기 전의 단계다. 당시의 내년 목표는 무엇인가? 체중감량? 다독? 목표는 다소 이상적이어도 괜찮다. 1년 뒤 이루고 싶은, 되고 싶은 나 자신을 생각하며 목표를 정한다. 그리고서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계획을 세울 땐 연 단위, 월 단위, 주 단위, 일 단위로 거시적인 단계에서 점차

미시적인 단계로 들어가면 된다. 이는 실행 가능한 계획이 될 수 있게 현실적인 조건들을 세부적으로 따져보는 과정이다.

새해 목표를 세웠다면 1년이 되는 12개월 단위의 목표도 세워 본다. 대개는 연 단위에 두고 작성하는 것이 좋다. 주 단위와 월 단위는 계획을 세운다. 월 목표까지 세웠다면 단기 계획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단기 계획

단기 계획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기사가 발행된 시점인 12월에 새해 계획을 작성한다고 가정하면, 시행착오 기간인 12월 중순부터 1월 초순 정도의 기간을 염두에 두고 작성하는 것이 좋다. 또 계획을 잘 때는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만약 헬스할 계획이라면, 무슨 요일에 어떤 운동을 몇 회씩 할 것인지 자세하게 쓰는 것이 좋다. 만약 일주일 안에 책을 읽을 계획이라면, 매일 몇 페이지까지 읽을 것인지에 대해 자세한 페이지 수를

쓰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다. 그렇게 시행착오의 과정을 일주일에서 2주 정도를 겪어본다. 그러면서 나에게 맞는 방법과 주기를 찾아가며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다.

#목표? 그거 어떻게 가지는 건데

새해를 준비하기 위해 가져야 할 마음이 집과 목표 세우기, 그리고 계획 짜기에 대해 언급했다. 그런데 아무리 목표를 가지려고 해 봐도 '어떤 목표를 가지는 게 좋을까?' 하며 삶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좋을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할 것이다. 이런 경우의 사람들에게는 계획을 미리 세워서 실행하는 것보다, 오히려 천천히 새해를 맞이하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또 그런 사람들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첫 번째는 목표 없이 여러 가지 일을 도전하는 것이다. 깨달음 이후에 실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행 이후에

깨달음을 얻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사람들이 향하는 보편적인 방식보다 다른 방식으로 향해도 괜찮다.

두 번째는 새해에 떠오르는 일출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다. 일출뿐만 아니라 도시의 야경 또한 마찬가지다. 당신이 어떤 과정에 있는지 알 순 없지만, 광경을 통해 위로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생각을 정리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성찰 이후엔 늘 새로운 깨달음이 오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기존의 학업을 끝마치고 새로운 학교에 입학해 학업을 진행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다.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그 과정엔 수많은 기회가 존재한다.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자.

내년을 위해 올 해도 잘 마무리 할 수 있길 바란다.



내가 완벽한 연말을 보내는 방법

이상학(사회복지학과·2)

올해 3월 한 어르신을 만났다. 어르신은 봉사활동을 통해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굉장히 겸손하고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런 어르신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봉사활동기간 동안 약 1년간 매주 전화를 드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해서 함께 여러 가지 활동을 함께 진행했다. 처음에는 소극적이었던 어르신이 말씀도 많아지고 활발해지면서 점차 적극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에 정말 뿌듯했던 기억이 있다.

활동이 마무리되어 갈 때 즈음에는 어르신과 함께 요인노래방을 가보기도 하고, 공원 산책을 함께 나갈 정도로 유대관계가 좋아졌는데, 활동 마지막 날 어르신이 1년 동안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어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본인이 20대에 도전적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많이 남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여러 가지로 도전해 보고 많은 것을 경험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나에게 정말 크게 와닿았다.

나는 어느덧 벌써 4학년이 되어 곧 졸업을 앞두고 있다. 약 4년간의 대학 생활을 돌아보면서, 학교에서 진행하는 동아리나 다양한 프로그램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볼 걸 그랬나? 라는 아쉬움과 미련을 가지고 있던 찰나, 어르신의 조언을 듣고 현재 여러 가지로 도전하고 있다.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학교에서 아직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아직 진행되고 있어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 감사하다.

신문사 글쓰기 또한, 좋은 기회가 생겨 대학이 졸업 전 현재 25살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글로써 남길 수 있게 됐다.

2023년 12월 벌써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연말이 성큼 다가왔다. 늘 그랬듯 무난하게 흘러가는 대로 학교 수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예상가는 연말을 맞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약 4년간의 대학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느끼는 아쉬운 감정에 학교 수업 이외에는 소극적이었던 나의 도전정신을 뒤늦게나마 깨웠더니, 현재 학교 신문에 실릴 글쓰기를 통해 나의 기록물을 남기게 됐으며, 또한 학교에서 진행하는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그렇게 이번 연말에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우즈베키스탄, 파나마, 멕시코, 중국 등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 유학생들과 1박 2일간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됐다.

지금까지 살면서 만나보지 못했던 다양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나에게도 새로운 경험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팀원들과 포항, 경주 지역을 여행하며 추억을 담은 영상을 촬영하기도 하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는 등 오랜 시간 소통하며 교류하는 시간이 나에게 정말 뜻깊고 소중한 경험들 하게 됐다. 나는 매년 연말이 되면 올해를 되돌아

보며 그동안 세웠던 목표들을 잘 이루었는지, 만족스러운 한 해였는지 생각해 보면서 한 해를 짚어보곤 한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만족스럽게 잘 보냈는가?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다짐들과, 수많은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살아 가고자 노력했을 것이다.

나 또한 올해를 맞이하면서 "이번 연도에는 기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이루어 내고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스스로 되뇌며 강한 열정과 함께 수많은 목표를 세우고 2023년을 맞이했다.

이번 연도를 돌아보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성과를 낸 목표들과 함께 전반적으로 꽤 만족스러운 한 해였지만, 조금 더 부지런하게 하부하루를 보냈다면 이를 수 있었을 달성하지 못한 목표들에 대한 미련과 후회가 남지 않았을 거지 않을까.

그러나 나는 이번 연말 미련과 후회를 기회 삼아 도전해서 얻은 값진 경험들을 통해, 도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 올해 연말, 내가 보냈던 소중한 경험과 추억들은 고이 간직하고, 그렇지 않은 기억들은 그것을 통해 극복하고 도전하는 것. 올해 초 봉사활동으로 우연히 만난 어르신 한마디로 인해 대학에서의 남은 기간이라도 도전 정신을 깨움으로써 소극적인 나의 성격을 고치고 다양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앞으로 나에게 펼쳐질 새로운 도전들과 경험들을 기대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것. 이것이 내가 올해 완벽한 연말을 보내는 방법이다.

죽비소리

연말

김살름(영상애니메이션학과·1)

연말, 이 단어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내 주변이 고요해진다. 연말엔 한 해의 모든 것이 마무리된다. 학교는 방학을 맞고, 길거리엔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연말을 맞이한다. 시끌벅적 떠들며 웃고, 울 한해 못다 이룬 꿈에 아쉬워하기도 한다. 정신없이 살아온 한 해가 정리되는 시간인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것은 연말 음식, 집마다 다들 손이 갔지만, 연말 홈 파티에도 크리스마스에도 빠질 수 없는 케이크! 오늘 난 이것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우리 연재부터 크리스마스에 케이크를 먹었을까? 필자가 알기론, 서구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최대 명절로 손꼽기 때문에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이를 기리기 위해 특별한 음식을 나눠 먹었다고 한다. 크리스마스 케이크도 이러한 풍습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서구의 문화가 전해져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먹기 시작했다고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폭신폰 스펀지 위에 생크림을 발라 온갖 토핑으로 장식한 스펀지케이크, 가운데 구멍이 뚫려있어 마치 도넛같이 재밌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 시폰 케이크, 케이크 시트 위에 속 재료를 바른 후 대굴대굴 말아 만든 롤 케이크... 촉촉하고 달콤한 이 케이크에 아이들은 고소한 우유로, 어른은 씩씩한 커피로 합을 맞춘다.

이 기사를 통해 내가 알고 있는 전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필자는 크리스마스 케이크에 대해 알려주고자 한다. 먼저 재료를

준비해야 한다. 재료는 중력분의 밀가루, 계란, 설탕, 생크림, 토핑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케이크를 만들기 전에 생크림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을 추천한다.

레시피는 이렇다. 먼저 계란의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한 다음 노른자에 설탕 1큰 술을 넣고 풀어준다. 노른자를 풀었다면 흰자에 설탕 1큰 술을 넣고 거품이 생길 때까지 저어준다. 이렇게 흰자와 노른자를 설탕을 넣고 푼 다음, 겹쳐다가 노른자 베이스, 흰자 베이스를 반씩 넣어주며 휘저어준다. 어느 정도 다 저어졌다 싶으면 전자레인지에 1분씩 두어 번 돌려준다. 1분간 돌려진 베이스는 카스테라가 된다.

완성된 카스테라의 층을 가로로 나눈다. 나눈 층 사이사이마다 아까 준비해둔 생크림을 발라준다. 겹면도 밀가루 발라줘야 한다. 여기서 추가로, 층 사이엔 딸기잼을 바르고 같은 생크림을 발라도 좋다. 생크림을 발라 완성된 카스테라에 풀이나 연유를 올려 먹어도 좋다. 추가로 딸기, 초콜릿 등 원하는 토핑을 올려서 마무리하면 완성이다. 혹여나 느끼하고 단 것을 싫어한다면 그냥 전자레인지에서 꺼내 바로 카스테라를 먹어도 좋다!

필자는 지금까지도 케이크에 우유를 곁들이는 걸 선호하는데 추운 날 따뜻한 것 데운 우유에 케이크가 입 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좋아한다. 그럴 때면 내가 통속 속에 들어온 것 같이 퐁퐁글글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생각해보면 우리 어릴 때부터 케이크

를 먹어왔다. 유치원에서 열여섯 같은 달 친구들과의 생일 케이크, 꼭 앞에 초코 케이크와 생크림 케이크 하나씩 두고 파티를 했었다.

우리는 미각을 사용해서만 케이크를 먹는게 아니다. 시청각을 통해서 먹기도 한다. 유튜브에서 흥행하고 있는 '먹방'이라는 분야다. 최근 필자는 '우유에 케이크 먹기'라는 먹방 영상을 봤는데 그 내용이 케이크 한판을 큰 그릇에 넣어 우유를 그 위에 반쯤 잠길 때까지 따르 후 우유로 인해 촉촉하고 부드러운 케이크를 손가락으로 푹푹 퍼먹는 내용이였다. 필자는 아직도 그 영상을 생각하면 군침이 돌곤 한다. 이처럼 케이크는 특별한 날에만 먹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우리 일상 속에서 자주 먹곤 한다.

그리고 홈 케이크. 어릴 적엔 부모님이 특별한 날 사주셔서 먹을 수 있는 특식이었지만 이제는 성인인 된 지금, ... 지금도 여전히 특식이다! 일단 홈 케이크는 혼자서 먹기엔 양이 많다. 그렇다고 남긴 걸 잘라내어 보관하면 시간이 지나 그 맛이 떨어지기도 한다. 물론 혼자 다 먹을 수 있는 위장을 만들면 되지만... 홈 케이크를 먹을 때 사람들과 둘러앉아 도란도란 얘기하며 먹는 그런 따뜻한 기분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다들 이번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둘러앉아 따뜻한 우유에 케이크를 나눠 먹어 보는 것이 어떤가? 필자는 이번 크리스마스엔 퐁퐁글글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이달의 명언

건강과 명상은 서로가 서로를 낳는다
-조셉 에디슨

강한 신체는 정신을 강하게 만든다
-토머스 제퍼슨

건강한 몸은 정신의 전당이고, 병든 몸은 감옥이다.
-프랜시스 베이컨

네 컷 만화

설레는 연말



동서인 모두 따뜻한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

목회칼럼



최민구 교목실장

우리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듯 모든 역사의 끝에는 평가가 있다. 2023년의 시작이 엇그저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감하는 연말이다. 연말이 되면 기업이나 개인은 한 해를 결산하고 새 해를 준비한다. 사람에 따라 한 해를 마감하며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허탈하고 허무한 연말을 맞이하기도 한다. 어떤 기업은 문을 닫기도 하고 또 혁신을 통해 새로이 태어나는 사업체도 있다. 고대 바벨론은 역사가

시작된 지 76년만 종결했고, 이후 페르시아 제국이 200여년의 역사를 누렸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까닭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저울에 달아 보니 부족함이 보여 역사를 끝냈다(다니엘5:26-27)'고 기록하고 있다. 세상을 호령했던 헬라도 150여년만에 사라지고 이후 로마제국은 400여년을 넘어 멸망을 이어갔다. 그러나 결국 로마도 쇠퇴했다. 찬란했던 로마가 무너진 까닭을 성 어거스틴은 '신국론(De Civitate Dei)'을 서술하면서 기독교를 진보하게 믿지 않는 이교도들 때문이라고 보였고, 같은 맥락에서 살비아누스는 '신정론'에서 로마 쇠퇴의 원인이 죄악과 부정부패에 대한 나라의 심판이라고 보았다. 나라가 무너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또 역사를 이어가는 것 역시 당연한 까닭이 있다. 광범한 개인이나 국가뿐 아니라 기업이나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한 해를 마감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을 통해 역사의 마디를 지어 더 나은 방향과 목표를 설정해 역사의 수명을 늘려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걸어

역사의 수명을 늘려 가려면

왔던 길을 돌아보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께로부터 미래의 시간과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찬스라 하겠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반성의 기준이고 방향 수정의 근거인지 아는 것이다.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살피지 못하고 표층적 해결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다. 권의 주의,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등의 가치관은 인간 이기주의의 산물이다. 이 가치관들은 수험생들의 과대학원으로 쏠림 현상이나, OECD국가중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된 것과 청년들의 제조업 및 기술직 기피현상, 이공계 기피현상, 답안교사 기피현상 등, 무면허 성형수술 문제나 성형수술 부작용 피해 사례 등을 열매를 맺었다. 인간 이기주의의 산물인 물질만능주의와 권의주의, 외모 지상주의 등이 기준이 되어서는 이 사회는 희망이 없다. 과연 우리는 무엇이 반성해야 할까? 필자는 잠깐 인생의 방향에 관한 기준이 성경안에 담겨 있다고 주장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인생을

말기셨고 그리고 마지막엔 결산할 것을 일관되게 가르치신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농장 주인의 비유가 등장한다. 주인이 자신의 농장에 농부들을 불러 일을 맡겨놓고 먼 타국에 떠난다. 농장에 소출 거둘 때가 되자 종들을 보내어 소출을 받아 오도록 한다. 이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개인이나 공동체를 하라던 사명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짧은 비유이다. 이는 역사를 인간에게 맡기신 하나님이 종국에 평가를 하신다는 성경전체의 핵심을 잘 담아놓은 비유이다.

그런 까닭에 자기 인생을 가치있게 살았다고 평가받는 많은 이들이 성경을 읽었고, 그들은 성경에 관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성경 없이는 세계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고 했다. 패트릭 헨리는 '성경은 지구상에 출판된 모든 책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했다. 그 외에도 에이브러햄 링컨, 윈스턴 처칠, 아돌프 히틀러, 아돌프 토일버, 니엘 웨스터

등 이들 모두가 성경을 끊임없이 읽으며 성경이 이끄는 생애를 통해 세계사의 한 획을 그은 사람이었다. 모두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다.

성경에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이사야40:4)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외치고 있다. 풀과 꽃은 인간 개인과 국가같은 집단의 영광을 뜻한다. 그러므로 풀과 꽃이 해마다 피고 지는 것처럼 인간과 국가의 영광이 등장과 퇴장을 반복하는데 마치역사의 산맥처럼 다 지나 가지지만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만 남는다는 의미를 갖는 말씀이다. 서양 속담에 '역사는 반복된다(History repeats itself)'라는 말이 있다. 곧 '역사는 진전을 해야 하는데 실수가 반복되고 있다'는 뜻으로 경고가 담겨 있는 속담이다. 나와 공동체의 역사는 매년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는지 피고 지며 사라지는 역사속에 영원히 남아 있는 성경을 읽으며 지혜를 발견하는 연말이 되길 바란다.

사설

유튜브도 독서인가

요즘은 유튜브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튜브는 우리 일상의 대부분을 정복했으며 유튜브에서 나오는 수많은 정보의 바다에 살고 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튜브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다. 필자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까지만 해도 유튜브를 통해 무언가 정보를 얻고, 오락거리를 얻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었다. 심지어 필자가 군대에 있던 시절까지만 해도 말이다.

하지만 유튜브는 불과 5년도 안된 짧은 시기에 전 세계를 점령했고, 한국에서는 유튜브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튜브를 통해 얻는 정보가 책을 통해 얻는 정보보다 훨씬 많고 다양하며 가치적이고 빠르기까지 하다.

가성비를 따지는 현대인의 특성 또한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인다. 서점에서 책을 구매하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보는 것보다 스마트폰으로 보는 유튜브를 통해 짧은 독서를 하는 추세다.

그렇다면 유튜브를 과연 독서에 비교할 수 있을지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

다. 이것은 온전히 필자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궁금할 만한 주제일 것이다. 그래서 찾아본 결과 '경향신문'에서도 필자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질문을 던졌다. "유튜브도 독서인가?"라고 말이다.

맨부커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책을 통해 "누군가의 내면, 생각과 감정 속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모니터 속에 존재하는 이미지의 총합이 아니라 손으로 만질 수 있고 크기와 무게가 있고 감촉이 있는 매체를 그리워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는 유튜브 영상 시청이 독서를 대체하며 독서율은 곤두박질치고 있다고 걱정한다.

혹자는 유튜브가 가지지 못한 독서의 가치에 대해 말한다. 특히 북투버 공백은 '콘텐츠를 만들면서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책을 읽는 삶이 이렇게 재미있다'는 것"이라며 "유튜브 콘텐츠와 독서는 분명 다른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지금까지 '쇼츠'나 '릴스' 같은 쇼트폼이 대세

인 경우 책의 내용을 영상으로 온전히 전달받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사실은 처음 듣는 이야기도 아니다. 독서 인구 감소에 따른 문해력과 사고력의 저하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돼왔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2020년 성인 문해능력 조사'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성인 중에서 중학교 이하 수준의 국어 학습이 필요한 성인은 20.2%(약 890만 명)에 달했다. 교육부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보면 국어 기초학력에 미달한 고등학교 2학년 비율은 2019년 4.0%, 2020년 6.8%, 2021년 7.1%로 증가했다.

필자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공감하는 입장이다. 아무리 유튜브가 편하고 정보 전달력이 좋지만 우리가 영상에 익숙해 진다면 점점 글과 멀어진다고 생각한다. 인류 역사상 글과 멀어졌을 때 결코 좋은 기억이 없었던 것처럼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잠시 끄고 덮어둔 책을 꺼내 읽어 보는 것이 어떨까.

자료출처 - 경향신문
박상욱 기자
park20601716@gmail.com

동서만평

글·그림 김은아



■ 학생 인터뷰 - 광고홍보학과 김시은

졸업을 맞이하면서

졸업을 앞둔 학회장 김시은 학생과의 만남



▶ 김시은 학생



▶ 학교 행사를 진행하는 김시은 학생

졸업 시즌인 2월을 앞두고 있는 지금, 졸업을 맞이하는 4학년 학생들은 후련함과 아쉬움이 교차할 것이다. 졸업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며 더 나아가기 위한 징검다리이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 광고홍보학과 4학년 학회장 김시은 학생을 만나 졸업을 맞이하는 심경에 대해 들어봤다.

Q.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동서대 광고홍보학과 4학년 김시은이라고 합니다.

Q. 이번 학기가 마지막 학기로 졸업을 맞이하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A. 이상하게 심층생생해요. 늘 항상 기대했던 졸업이 다가와서 후련하다기도 아직 이렇게 모르는 게 많고 부족한 난데 내가 벌써 졸업을 해도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Q. 향후 진로 방향은 어떻게 되시나요?

A. 원래는 제 광고홍보 전공을 살려서 바로 광고 대행사로 취업 준비를 하려고 했으나 우연한 기회로 영국 워킹홀리데이를 가게 돼서 위홀을 다녀온 뒤에 더 정확한 방향성을 고민해 볼 거 같아요. 최근 들어 꼭 광고 대행사가 아니어도 전공을 살릴 방법은 많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 시야가 넓어진 것 같아요.

Q. 학교에서 했던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무엇이었나요?

A. 올해 학회장으로서 진행했던 2023년

도의 모든 행사가 기억에 남아요. 사실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모든 행사가 재개돼야 했었는데 제가 코로나 학번이라 제대로 인수·인계 받을 만한 것들이 없다 보니 모든 게 처음이라 많이 막막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항상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마무리했고 또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많은 위로와 스스로 많은 배움을 얻었기에 더 기억에 남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Q. 대학 생활 중 막막했던 적은 언제였고,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A. 학교를 다니면서 크게 막막했던 적은 없던 거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 또한 힘들어서 기억에 남기보단 그 과정에서 받았던 도움과 행복, 배움들이 기억에 남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크게 안 좋거나 막막한 순간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에 저의 대학 생활은 되돌아보니까 매년 재미있는 날이었고 특별하고 소중한 경험들로 가득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졸업을 앞둔 지금이 가장 막막하게 느껴져요. 제가 대학 생활에서 느꼈던 소중한 경험들이 사비에 나갔을 때도 여전히 아쉬워하거든요.

Q. 대학 생활을 돌이켜볼 때 좋았다 싶은 점과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A. 가장 좋았다 싶은 건 1학년 초반 학년 대표를 지원했던 순간이에요. 고등학교 때는 늘 어리바리하던 저였는데 20살이 되고 나서는 또 제 나름의 멋진 대학 생활을 상상해 보며 지원했던 첫 번째 도전이 바로 이 학년 대표를 지원해 보는 거였어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같은 이 첫걸음에

큰 용기 냈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제가 대학 생활을 대했던 태도와 경험과 모든 기회와 만남이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아쉬운 건 이런 과정 속에서 여전히 제가 100 퍼센트 최선을 다해 모든 순간을 보내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쉬워요.

Q. 우리 대학만의 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이진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동서대는 학생들에게 열어 주는 기회의 폭이 정말 넓은 거 같아요. 그만큼 각 학과의 학생들이 해 보고 싶은 공부와 경험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말 잘 찾아보면 SAP나 GELS, 그리고 우리 학교 한정이지만 IFS, 아카데미, 클러스터링 등 다른 대학에서는 잘 해 보지 못하는 경험을 저는 정말 많이 할 수 있었어요.

Q.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 몰랐지만 어른들이 늘 하는 말 중에 대학생 때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저도 이제 막 졸업을 앞두고 보니 이 말이 가장 크게 와닿는 거 같아요. 정말 말 그대로 대학생 때는 대학생 때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노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 누릴 수 있는 혜택들, 만날 수 있는 인연 그 모든 것들이요. 저는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후회 없이 간절하고 진득하게 즐기셨으면 해요. 그러면 지금 심층생스럽게 졸업하는 저보다는 좀 더 후련하게 졸업을 맞이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년연 수습기자

■ 학생 인터뷰 - 영상애니메이션학과 김성은

고전동화 재구성, 피노키오를 눈사람으로!

팀 제페토의 <스노키오> 감독, 김성은 학생을 만나



▶ 김성은 학생



▶ 작품 <스노키오>의 한 장면

이번 2023 부산디지털혁신아카데미 잡페어에서 수많은 경쟁을 뚫고 올라와 우수상을 받은 작품이 있다. 그중 <스노키오>를 만든 영상애니메이션학과 팀 제페토의 감독 김성은 학생을 만나 인터뷰를 해 보았다.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스노키오>를 제작한 팀 제페토의 감독 김성은입니다. 저는 기획, 스토리보드, 컬러 스크립팅, 캐릭터 디자인, 모델링, 리깅 등 프로젝트의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Q. 이번 잡페어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 간단하게 소개 가능할까요?

A. 잡페어는 부산지역 14개 대학생들과 ICT 분야로 서로 성과를 겨루는 축제이면서 ICT 기업 간의 교류와 채용의 장이 열리는 취업박람회입니다. 이곳에서 취업 면접을 볼 수도 있고, 유명한 기업 소개와 이력서 잘 쓰는 노하우 강연도 들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아이디어라면 잡페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Q. 잡페어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우리 작품 만들었는데 어디 성과를 보여줄 곳 없을까?' 하고 행사나 공모전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부산시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주최하는 잡페어라는 행사가 개최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ICT 분야 중에 저희 작품이 콘텐츠 산업

에 해당해서 잡페어의 취지와 맞을 거라 생각해 바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Q. 당시에 내셨던 작품 <스노키오>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A. <스노키오>는 피노키오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삼아 기존 원작과 다른 스토리와 캐릭터를 창작해서 전에는 없던 새로운 애니메이션 작품입니다. 눈이 내리는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어린 소녀가 만든 눈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스토리코로 불립니다. 사람이 되고 싶었던 스노키오는 자신의 욕심에 선물상자를 훔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데,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주인에게 돌려준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Q. 작품을 준비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을까요?

A. 애니메이션 기획 단계에서 2D와 3D 요소를 자연스럽게 섞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요. 메인 3D 작업으로 진행하되 배경 하늘과 사진 그림들, 이펙트 등 작품에 등장하는 배경에 2D 적 연출이 함께 어우러지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2D 그림이 들어가도 전반적인 3D 영상에서 어색하지 않은 분위기를 맞추는 것에 신경을 기울였습니다.

Q. 메이킹 필름에서 무성 애니메이션은 아니지만 대사가 없다고 했는데 이러한 방향을 정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A. 캐릭터가 아무 소리를 내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서 녹음하고 싶었는데 지원 전문 성우가 아니라서 대사 없이 감탄사 위주로만 녹음하게 됐습니다. 말하는 대사는 없지만 감탄사 대사 정도만으로도 캐릭터의 감정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고,

대사와 입 모양 표현을 즐기고 다른 작업에 더 퀄리티를 올릴 수 있는 장점도 있어서 대사가 없는 애니메이션 제작으로 방향성을 잡았습니.

Q. 감독 겸 많은 역할을 맡으셨는데 준비를 하면서 힘들거나 어려웠던 점이나 아쉬웠던 부분은 없었나요?

A. 지금 저를 돌아보면 감독이라 하기에 참 구멍이 많은 감독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야든 팀이 구성되면 팀 내에서 정말 많은 스토리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각자 원하는 연출과 스토리가 다르다 의견차이가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감독이 좋은 것만 담고 불필요한 요소들을 과감하게 버려주면서 작업의 방향성을 알고 이끄는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로 문제없도록 중간 스태프 역할을 도맡아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찬 경험이었습니.

Q. 다음 잡페어를 준비하는 과 후배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플랫폼이든 콘텐츠든 개발 앱이든, 자신이 만든 작품의 목적성이 잘 드러나는 게 좋고, 주제를 명확하게 보여줘서 관객이나 소비자에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작자한테 이 작품이 뭐냐고 물어볼 때, 막히지 않고 설명할 수 있어야 심사위원한테도 확실히 전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인터뷰가 처음이라서 많이 떨렸는데 질문 하나하나가 저를 돌아보기도 하고 저희 작품을 한 번 더 소개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김우진 수습기자

성경 속 음식 이야기_무화과



▶ 무화과 사진

▶ 사진출처 - pixabay

무화과

팔레스타인 지역을 대표하는 삼대 과일 중엔 포도, 석류, 그리고 무화과가 존재한다. 그 중에서 무화과는 성경에서 어떤 의미의 과일이고, 또 어떻게 요리됐는지 알아보려 한다.

꽃이 열매 속에 있어 보이지 않아서 무화과라는 이름을 갖게 된 과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개화기에 들어와 남부 지방에

서 재배되고 있다. 무화과는 과일로 먹을 뿐 아니라 과육과 씨앗에 포함된 약효성분 때문에 예로부터 여러 나라에서 치료제로 사용해 왔다. 무화과는 반죽과 함께 요리해 유다 왕 히스기야의 종기로 인한 생명이 위협했을 당시 그를 회복시키기도 했으며, 아비가 일이 다윗과 그를 따르는 수하를 위해 요리했던 음식이기도 했다.

무화과 반죽과 히스기야

성경에는 다양한 먹을거리를 약처럼 활용한 지유 사제들이 자주 등장한다. 다윗의 후손이며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의 경우를 살펴보자.

그는 25세에 유다 국왕의 자리에 올랐다. 다른 선왕들과 달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일차적으로 강조했던 히스기야는 유다 왕국의 종교적 타락이 아시아와의 오래된 종속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하고서 정치와 외교 관계를 단절했다. 또 내부적으로는 과감한 종교개혁을 단행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다는 아시아의 침공을 받아서 국가운명까지 위협을 받기도 했다. 개혁의 중심에 있던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리게 된다.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으나 일부 종양이나 문둥병 등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히스기야는 병의 회복을 구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를 했다. 외병 중인 히스기야를 찾아오는 예언자 이사야의 말을 들으며 통곡하기도 했다.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사 38:1

결과적으로 기도는 효험이 있었다. 하나님은 그에게 수명의 연장을 약속하시자,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종기를 치료할 수 있는 민간요법을 알려 줬다. 예언자 이사야의 처방에 따라서 사람들이 무화과 반죽을 가져다가 그의 상처에 바르자 곧장 회복이 됐고, 이후로도 15년을 더 살았다고 한다.

실제로 무화과는 피부질환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무화과는 당도가 아주 높아 적절하게 수확하지 않으면 껍질이 벌어져서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번에 모두 따서 말려 놓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무화과와 아비가일

이번에 언급할 무화과 음식은 약의 효능을 가지고 있던 알지닌 다른 무화과 음식에 대해 알아보자.

아비가일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수하를 위해 음식을 마련해야 할 때가 있었다. 당시 급하게 음식을 마련해야 했었는데, 그렇다고 아비가일은 무작위로 음식 목록을 구성하지 않았다고 한다.

아비가일의 음식 목록에 포함된 무화과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의 풍성함을 묘사할 때 구체적으로 거론할 만큼 중요한 과일이었다.

"네 하나님 야호와께서 너를 아말다온 땅에 이르게 하시니니 그곳은...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신 8:7-8 아비가일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수하를 위해 말린 무화과와 건포도를 함께 제공했다고 한다. 말린 무화과와 건포도는 함께 놀러 덩어리로 만들면 끝이다. 이는 언제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형태였다. 또 말린 무화과는 오랫동안 두고 먹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저장식품이기 때문에, 거처가 일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리저리 떠돌아야 하는 다윗과 일행을 위한 좋은 식량이 됐을 거라 한다.

다윗은 아비가일이 챙겨 온 음식 덕분에 심각한 식량 부족 상태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음식을 구걸하다가 모욕을 당하고 결국 피를 부르는 싸움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생각한 순간, 풍성하게 음식을 준비한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의 철저한 도움의 손길을 새삼 깨달았을 것이라고 한다.

무화과를 이용한 양고기 요리

이 요리는 아비가일의 요리 제조법이다. 무화과는 다른 과일에 비해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분해효소인 피신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다. 서양에서는 건강식으로 식탁에 자주 오르고 있고, 특히 당분 함량이 많아 건과나 잼, 혹은 주스로 이용된다. 무화과가 수확능의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서는 예로부터 고기 요리에 무화과를 식재료로 활용해 왔다.

만드는 과정은 이렇다. 먼저 프라이팬에 기름을 치고 양파와 마늘을 노르스를 해질 때까지 볶는다. 일명 카리멜 라이징이라고도 한다. 이후에 양고기를 함께 넣고 잘 익을 때까지 고열로 가열하되 재료가 타지 않게 주의한다. 양고기가 어느 정도 잘 익었다면 닭 육수, 포도주, 식

초, 월계수잎, 겨자, 소금을 넣고 끓인다. 프라이팬의 뚜껑을 덮고 1시간 정도 중간중간 끓인 이후에 무화과, 완두콩, 당근, 황설탕을 넣고 고기가 연해질 때까지 20분간 더 끓인다. 이렇게 완성된 무화과를 아랫사람으로부터 비상식량으로 공급받기도 했다.

말린 무화과와 같이 먹은 건포도

유대인들은 건포도를 그냥 먹거나 빵에 넣어서 먹곤 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상식량이나 약품으로도 사용했다.

앞서 언급했던 아비가일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말린 무화과와 같이 건포도를 못쳐 비상식량으로 준비하곤 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국왕의 자리를 노리는 아들 압살롬의 공세를 피해서 식량을 준비하지 못한 채 급히 피신한 다윗 역시 건포도를 아랫사람으로부터 비상식량으로 공급받기도 했다.

성경시대 사람들은 사망 때문에 병을 앓을 때도 건포도와 사과를 먹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련하게 하라 내가 사함하므로 병이 생겼음이라" 아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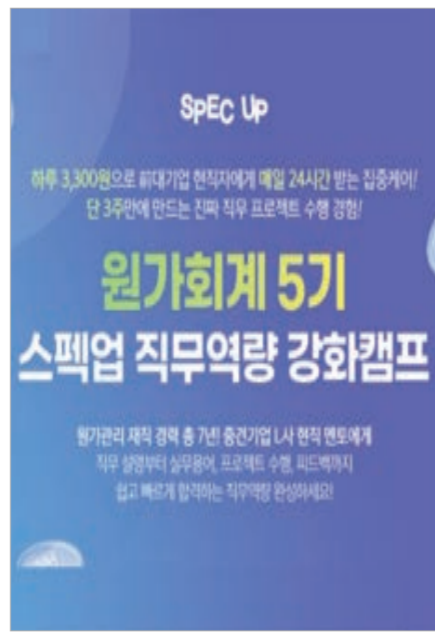
이렇게 히스기야의 병을 고치고 아비가일의 레시피로 사용했던 무화과 효능을 신기한 성경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료출처-맛있는 성경이야기 정은영 기자 Jndmsdud@gmail.com

참여하면 유익한 '대외활동·공모전'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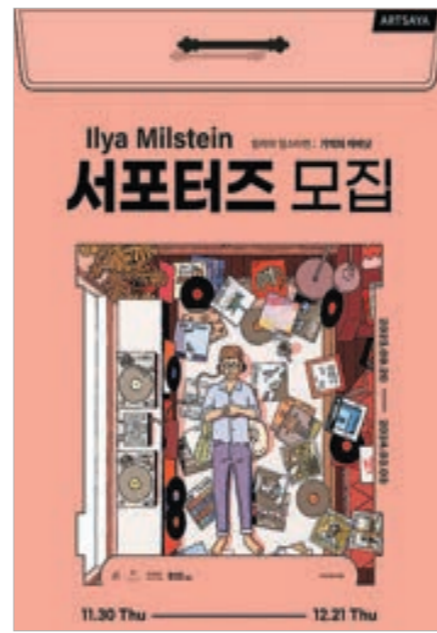
- 이노베이터 9기 모집
- 응모기간 : ~23.12.14
- 접수대상 : 대학생
- 공모분야 :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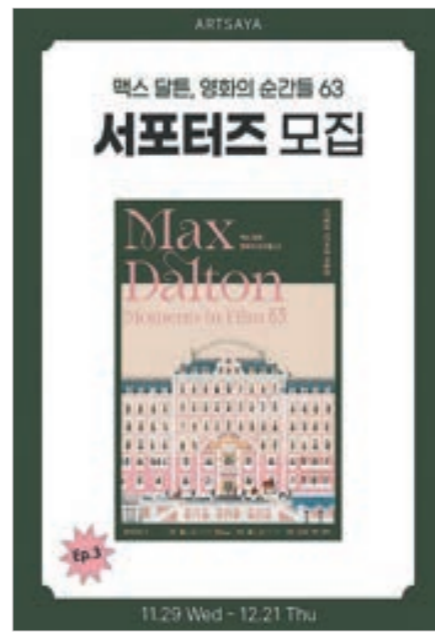
- 원가회계 직무역량 강화캠프 5기 모집
- 응모기간 : ~23.12.19
- 접수대상 : 제한 없음
- 공모분야 : 경제·금융



- 단종문화제 굿즈 디자인 공모전
- 응모기간 : ~23.12.20
- 접수대상 : 제한 없음
- 공모분야 : 캐리커



- 일리아 밀스타인 : 기억의 캐비닛 2차 서포터즈 모집
- 응모기간 : ~23.12.21
- 접수대상 : 제한 없음
- 공모분야 : 행사·콘텐츠



- 맥스 달튼, 영화의 순간들 63 서포터즈 모집
- 응모기간 : ~23.12.21
- 접수대상 : 제한 없음
- 공모분야 : 행사·콘텐츠



- 잠자리프레스 44기 블로거 유튜버 모집
- 응모기간 : ~23.12.25
- 접수대상 : 제한 없음
- 공모분야 : 여행·항공



- 삼성카드 열린멘토링 13기 대학생 멘토 모집
- 응모기간 : ~23.12.26
- 접수대상 : 대학생
- 공모분야 : 교육



- 삼성 금융연수 프로그램 3기 모집
- 응모기간 : ~23.12.27
- 접수대상 : 제한 없음
- 공모분야 : 경제·금융



- 2023 하반기 몬스터 에너지 엠버서더 모집
- 응모기간 : ~23.12.31
- 접수대상 : 제한 없음
- 공모분야 : 행사·페스티벌



- 링크튜브 슬로건 공모전
- 응모기간 : ~23.12.31
- 접수대상 : 제한 없음
- 공모분야 : 아이디어



- 제2회 KPR 대학생 PR 아이디어 공모전
- 응모기간 : ~24.1.15
- 접수대상 : 대학생
- 공모분야 : 기획·마케팅



- 광주광역시 창작 희곡 공모전
- 응모기간 : ~24.3.8
- 접수대상 : 제한 없음
- 공모분야 : 문학·시나리오

내 손으로 찍은 동서대학교!

우리 대학의 풍경 사진을 찍어 제보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다음 달 신문 1면~3면에 제보해 주신 사진들을 첨부할 예정입니다.
자신이 찍은 사진이 신문에 실리는 소중한 경험을 동서대학보를 통해 즐겨 보세요.

예시) 우리 대학 풍경, 학교에 사는 고양이 등

- * 제보하고 싶은 사진은 Ortarb1@gmail.com으로 보내 주세요.
- * 당첨자 발표는 따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발간되는 194호(3월호) 신문을 확인해 주세요.
- * 신문에는 사진과 함께 제보해 준 학생의 학과,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